

文學碩士 學位論文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의 생업활동
- 조기 ~ 전기유적의 어로활동을 중심으로 -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정 미 란

2007年 12月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생업활동
- 초기 ~ 전기유적의 어로활동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昌 鎬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12月

慶州大學校 大學院

文 化 財 學 科

鄭 美 爛

鄭美爛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審 查 委 員 印

審 查 委 員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7年 12月

목 차

I. 머리말	1
1. 선행연구의 검토	1
2. 문제제기와 연구방법	3
II 해수면 변동에 따른 고고학적 사례	6
1. 중국대륙 자연환경의 변화	8
2. 일본열도 자연환경의 변화	10
3. 한반도 자연환경의 변화	11
III. 해수면 변동기의 동해안지역 유적과 출토유물의 양상	16
1. 한반도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토기의 편년	16
2. 동해안지역 유적과 출토유물의 양상	18
1) 고성 문암리유적	19
2) 양양 오산리유적	25
3) 울산 우봉리유적	29
4) 울산 세죽유적	31
5) 동해안 이외 지역	34
IV. 해수면변동과 신석기 초기·전기유적과의 관계	43
V. 동해안지역 신석기 초기·전기시대의 생업활동	48
VI. 맺음말	61

I. 머리말

신석기란, 선사고고학의 한 분야로서 구석기 다음에 오는 시기를 총칭하여 일컫는 용어로서, 이전 뎨석기를 사용하던 구석기시대를 지나 간석기를 사용하면서, 도구의 제작이 훨씬 숙련된 과정 거친다. 석기제작도구 과정에서 크기의 축소화, 석기기종의 다양화, 제작기술의 발전 등 도구의 발전으로 수렵, 채집, 어로생활이 더욱 손쉬워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수혈식 혹은 지상식 생활공간을 설치, 정주생활을 영위하였다. 특히, 토기라는 새로운 형식의 저장용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도구의 발전으로 불려온 잉여생산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요소가 동시기에 등장하는 곳은 없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는 토기의 등장을 신석기시대 개시의 지표로 삼아왔으나, 후빙기 이전에 토기가 이미 등장했음이 알려져 앞으로 신석기시대 정의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한다.¹⁾

한반도 내에서 신석기시대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여년도 채 되지 않는다. 짧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많은 수의 신석기 유적을 직접 실견할 수 있을 만큼 우리나라 고고학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1. 선행연구의 검토

우리나라 내에서 신석기시대가 존재함을 처음 인식한 것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서였다. 1920년대 평안남도, 황해도 고분조사를 시작할 당시, 鳥居龍藏은 용변리·몽금포 등의 해안지역에서 신석기시대 토기들이 출토됨을 인지, 이를 유문토기로 명명하였으며, 청동기시대와 함께 선사시대의 한 시기로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1930년대 부산주변의 패총연구를 시작으로 본격화 된 조사는, 물론 일인학자를 위시한 것으로 横山將三郎, 有光教一, 大曲美太郎, 及川民次郎 등의 부산고고회의 멤버를 대표할 수 있다. 특히 横山將三郎, 有光教一은 동삼동패총의 발견과 더불어 즐문토기의 지역별 자료집성을 이룩하여,

1)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강의』, 「신석기시대」, 2007, p.48.

신석기 학문의 기초적 자료를 제시한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할 수 있다.

이 후, 신석기 연구에서 주목된 학자는 佐藤達夫로, 한반도 내 전국각지의 유문토기를 중심으로 하여, 연해주와 장산열도의 토기를 비교하여 지역적으로 편년을 세우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경남해안의 토기를 4류로 분류하고, 용기문토기를 자돌문, 침선문과 함께 새로운 단계의 것으로 여겼다. 이 편년안은 동삼동 패총의 발굴에 의해 부정되었지만, 한반도 유문토기를 동아시아의 흐름 속에 두었으며, 층위 데이터를 근간으로 시기의 형식학적인 편년관을 세우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된다.²⁾

1940년대 이후, 부산을 포함한 경남해안 일대의 군사요새화의 진행으로 인해 감시 아래에 진행하던 유적조사조차도 곤란한 실정에 이르게 되고, 계속된 정치적, 사회적 혼란 중에, 경남일대의 고고학연구는 1960년대까지 거의 중단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반면 북한지역에서는 1950년대 평안남도 온천군 궁산리 패총유적의 발굴조사로 경남지역과는 반대의 상황을 맞이한다.

해방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위스콘신 대학의 Sample과 연세대학이 부산 동삼동패총의 발굴을 행하면서, 다시금 이 일대의 발굴조사, 및 분포조사가 활발하게 된다.

Sample은 동삼동 패총을 A·B지점으로 설정하고, 이 2개의 지점을 포함하여 조도기 → 목도기 → 부산기 → 두도기 → 영도기라는 층위적 변화를 설정하여 한반도 내 즐문토기의 흐름을 상정하게 된다.³⁾ L. Sample의 시굴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은 1969~71년에 걸쳐서 동삼동 패총의 전면발굴을 시행하였으며, 발굴의 책임을 맡은 김원룡은 발굴자료를 기본으로 최하층의 동삼동 I(용기문·압날문 등), 중간층의 동삼동 II(전형적인 즐목문토기), 상층의 동삼동 III(변형즐목문)이라는 흐름을 상정했다.⁴⁾

또한 동삼동 패총발굴조사를 토대로, 최종규는 함경남북도의 동북지방, 압록강에서 황해도의 서북지방 및 낙동강의 경상도지방으로 3지역을 분기하고, 신석기시대 출토 유문토기의 명칭과 시문기법의 형식적 분류를

2) 佐藤達夫, 「朝鮮有紋土器の變遷」, 『考古學雜誌』 48-3, 1963, p.14~31.

3) Sample, 「Tongsamdong; A Contribution to Korean Neolithic Culture History」, 『Arctic Anthropology』 vol. XI, 1974, p.1~125.

4) 김원룡, 『韓國考古學概說』, 일지사, 1973, 1981, 1989.

시도하였다.⁵⁾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양 오산리 및 남해안의 패총유적(수가리패총, 울리패총) 등 해안지역과 합천댐 수몰지구 봉계리, 임불리, 대야리유적 등 내륙지역에 입지한 새로운 신석기유적도 발굴조사되어 기존 해안선을 따라 분포하리라 여겼던 입지양상이 내륙으로도 확산됨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굴 활성화와 보고서의 간행에 힘입어 많은 자료와 정보가 공유되고 그 결과, 한반도내 신석기시대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게 되었다.

특히, 수가리 패총 보고서 이후, 廣瀨雄一, 小原哲, 宮本一夫의 일인학자들이 남해안지역의 편년안을 완성하였다.⁶⁾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강댐 수몰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발굴조사를 진행하는 시점이다. 이 지역은 남강수계를 따라 신석기~청동기시대의 주거유적이 확인되어, 거시적으로 선사취락 살필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는 새로운 유적이 발견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석기를 연구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이루어진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 결성된 한국신석기학회를 통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일본 구주와의 교섭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기존 편년안의 재검토, 지역간 세부 편년안, 용기문토기 전단계의 토기군 연구와 동물유존체 및 고환경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시도되기도 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환기시대에 대한 관심을 통해 신석기-청동기시대로의 이행을 주제로 하여 전환기시점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2005년 국립김해박물관에서의 전환기의 선사토기 특별전은 상기할 만하다.⁷⁾

5) 최종규, 「幾何文土器의 編年表作成을 위한 一小考」, 부산대학교대학원 문학석사학위 청구논문, 1977.

6) 廣瀨雄一, 「韓國南岸地域の櫛目文土器の研究」, 『考古學の世界』 3, 1984, p.19~30.

-----, 「櫛目文前期の研究」, 『伽倻通信』 13·14合輯, 1985, p.37~63.

-----, 「韓國嶺南地方櫛目文土器前期の土器變遷」, 『考古學の世界』, 1989, p.433~452.

小原哲, 「韓國櫛目文土器の變遷」, 『東北アジアの考古と歴史(上)』, 1987, p.326~372.

宮本一夫, 「朝鮮有文土器の編年と地域性」, 『朝鮮學報』 121, 1986, p.1~48.

7) 국립김해박물관, 『전환기의 선사토기』, 2005.

또한 신석기시대의 주거유적 조사 예가 급증함으로 최근 한국신석기학회에서의 한일신석기시대의 주거와 취락이라는 주제로 연구회를 가짐에 한일연구자들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⁸⁾

이로서, 최근에는 토기문양에 따른 편년안에 집중되었던 연구에서 탈피, 주거와 취락, 전환기, 토기요지, 토지이용전략, 사회복합화 등 당시의 생업과 사회변동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도 늘어나 보다 넓은 범주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

2. 문제제기와 연구방법

앞 서 신석기시대의 개괄적인 설명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신석기시대 유적의 최근 발굴사례 증가, 연구학자들의 교류, 기존 토기 편년에 편중되었던 연구흐름의 변환, 다양한 시도를 통한 자료의 축적 등 제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신석기시대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최근의 연구 경향 중 괄목할 만한 것은 신석기사회와 생업환경 등의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⁹⁾.

단적인 예로 주거유적에서 확인되는 탄화된 식물유체, 패총유적에서 집중 출토되는 동물유존체, 토기의 기벽에 부착된 음식물의 지방산분석

8) 九州縄文研究會，韓國新石器學會，「日韓新石器時代の住居と聚落」，『第7回日韓新石器時代研究會 發表資料集』，2007.

9) 김장식，「신석기시대 경제 연구와 패총」，『한국신석기연구』9，2005.7.

김장식，양성혁，「중서부 신석기시대 편년과 패총 이용전략에 대한 새로운 이해」，『한국고고학보』45，2001.

宮本一夫，「원경과 조몽농경」，『한국신석기연구』10，2005.12.

배성혁，「신석기시대의 토기요 연구-김천송죽리 토기요지를 중심으로-」，『한국고고학보』62，2007.3.

안승모，「동아시아 정주취락과 농경 출현의 상관관계」，『한국신석기연구』11，2006.

이경아，「식물유체에 기초한 신석기시대 ‘농경’에 대한 관점의 재검토」，『한국신석기연구』10，2005.12.

이현종，「동북아시아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 전환기의 해체과정과 통합의 체현상에 대한 연구」，『한국신석기연구』12，2006.

廣瀬雄一，「대마해협을 사이에 둔 한일신석기시대의 교류」，『한국신석기연구』9，2005.7.

등 신석기인들의 식량자원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얻는 일련의 분석작업이 그것이다.

또한 패총유적의 층위에 대한 재분석작업과 고환경 분석에 의해 해수면변동에 대한 언급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수면변동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광범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가령, 패총의 층위상으로 뚜렷이 확인되는 해수면 상승기의 증거를 이용하여, 대략의 시기설정에 편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면변동시기에 관한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인근나라의 해수면 변동기는 약 6,000 ~ 4,500 B.C.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수면 변동 시기가 우리나라 신석기 초기 ~ 전기를 전후로 해수면이 변동되기 시작한다는 점을 인식, 시기에 해당되는 유적을 조사해 본 결과, 동해안 지역에 집중적이었다.

본고에서는 우선적으로 해수면 변동기의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인근의 중국, 일본의 사례를 동아시아 일대의 해수면 변동기 시기를 살펴볼 것이다.

패총 층위에서 나타나는 해수면 상승의 흔적, 시료채취로 인한 분석자료, 고환경 분석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근거를 삼도록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해수면변동기가 시작될 당시 동해안지역의 신석기 유적의 예를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유적 내 출토유물 중 토기와 석기를 중심으로 특징을 확인해 볼 것이다.

세 번째로, 동해안 지역 유적과 해수면 변동의 시기적 상관관계를 언급해보도록 하겠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먼저는 탄소연대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것이며, 분석치가 없는 유적일 경우 출토유물의 기존 편년연구를 토대로 근거를 삼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수면이 변동함으로 일어나는 생업활동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어로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범주는 아래와 같다.

시간적 범위는 신석기시대 초기 ~ 전기에 해당된다.

공간적 범위는 동해안지역으로 한다. 동해안지역 다시 두 개의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강원도를 포함한 경상북도 북부지역까지를 동중해안지역,

경상북도남부지역에서 경상남도까지를 동남해안지역으로 구분하여 부르기로 하겠다.

우리나라 동중해안 지역은 강원도 양양 오산리 유적이 조사된 1981년을 시작으로하여¹⁰⁾, 활발한 발굴조사와 지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동해안 지역의 신석기 시대 고고학적 자료는 상당량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동남해안의 경우, 일제시대부터 조사되어 일찍이 신석기시대의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다양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유적은 대체로 패총이 집중된다.

이상으로, 선학들의 연구성과와 연구방법을 언급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해수면 변동에 따른 동아시아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해수면 변동의 시작과 현재의 해수면이 유지되는 기간이 과연 언제인지, 또한 우리나라의 어느 시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할 것이다.

10) 서울대학교박물관, 『오산리 유적』, 1984.
-----, 『오산리 유적 II』, 1985.
-----, 『오산리 유적 III』, 1988.

II. 해수면 변동에 따른 고고학적 사례

지구의 기후환경은 현재에 이르는 기간동안 긴 시간에 걸쳐 여러 가지의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단적인 예로 현재를 통해 기후의 변화성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세계의 기후는 폭염, 폭우, 가뭄, 강풍 등 이상기후가 빈발하고 있다. 이는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등의 환경문제로 말미암은 현상이다. 지구 환경변화로 이상기후가 생겨나는 이 시점에서 과연 과거 지구의 역사는 어떤 기후의 변화를 거쳤으며, 환경의 변화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지사상 신생대, 제 4기(Quaternary), 홀로세(Holocene, 현세)에 속하고 46억 년의 지구역사의 끝에 있다고 한다.¹¹⁾ 제 4기는 빙하가 발달했던 플라이스토세(Pleistocene)와 최종 빙기로부터 현재까지의 홀로세로 구분되며, 전자는 빙하기, 후자는 후빙기라고 불리운다.

플라이스토세는 지구역사의 약 200만 년을 차지하는데 제 3기가 되어 지구의 기후가 점점 한랭화되기 시작하여, 제 4기의 빙하기에 들어서는 시기를 일컫는다. 유럽에서는 비바(Biber), 도나우(Donau), 귄츠(Günz), 민델(Mindel), 리스(Riss), 뵘(Würm)의 빙하기로 나누고, 그 사이에 간빙기가 있었다고 한다.¹²⁾

후빙기인 홀로세(Holocene)는 제 4기의 마지막 빙하기인 뵘 빙기가 점점 축소하는 만빙기 시대 이후 약 1만년 전부터 기온이 상승하여 현재와 같은 온난한 시기에 해당한다.

이 중 신석기시대는 지질학상으로 신생대 제 4기의 마지막 부분인 홀로세(완신세:Holocene)혹은 현세(Recent)에 해당된다.

후빙기의 시작은 1969년 제 8회 국제 4기학회에서 주장된 공통된 의견인 1만 년이 채택되었으며, 본고에서도 약 1만 년 이후를 후빙기로 하도록 하겠다. 즉 앞서 언급한 뵘빙기와 다음 빙기 사이의 따뜻한 간빙기의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후빙기는 빙하기에 비해 기온이 온난하고 해수면의 변동으로 현재의

11) 박용안, 공우석 외, 『한국의 제 4기 환경』,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p.325.

12) 박용안, 공우석 외, 위의 책, 2001, p.326.

해수면에 이르게 된 시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온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후빙기의 환경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해수면 변동에 따른 지형의 변화, 동물상 및 미세화석의 연구, 꽃가루 성분분석, 지구화학적 분석 등의 고환경연구의 분석자료가 필요하다. 특히 해수면변동은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변화이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지구기온의 변화에 따른, 해수면변동의 사례를 확인하고, 변동시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지구에 인류가 생겨나기 훨씬 이전부터 지구의 기온변화는 계속 되어왔으며, 현재 인류는 수없던 기후변동의 휴식기간에 들어와 살고 있다.

인간의 체질적, 문화적 진화양상으로 볼 때, 발달의 상당부분은 지구의 기온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지구의 환경은 오늘날보다 훨씬 추웠던 500만년에서 1만년 사이에 빙하기와 간빙기를 반복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전지구적인 평균 기후는 지난 1400만년간 빠르게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였다.

빙하기 때는 상당한 지역(유럽 대륙과 북아메리카 대륙 및 동아시아의 일부 지역, 고산의 산악지대¹³⁾)이 빙하로 덮이거나, 얼어있는 상태였으며, 간빙기 때는 얼어있던 빙하가 녹아 자연스레 해수면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제 4기(Quaternary) 홍적세(Pleistocene, 플라이스토세) 기간동안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지질 역사 중 가장 최근의 시기로서 늦어도 약 180만년 전 이라 한다. 연구에 의하면, 현재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지구는 적어도 9차례의 빙하기가 뒤덮었고, 이 중 최후의 빙하기는 겨우 약 1만 5천년 전 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는 간빙기의 한 시간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온변화는 인간과 동식물을 옮겨 살게 만들었다. 추운 시기는 저위도나 온난 열대성 위도대로, 더운 시기는 냉대성 위도대로 이동하게 되었다.¹⁴⁾ 인간을 비롯한 지구의 모든 동식물은 살기 적합한 지역으로 퍼져나가 이미 살던 무리들과 섞이면서, 새로운 군집을 이루게 되거나 생물종의 혼합으로 전혀 다른 종을 형성하는 과정의 반복을 겪게 되었

13) 박용안, 공우석 외, 앞의 책, 2001, p.327.

14) Robert.J.Wenke 저, 김승욱 역, 『 선사문화의 패턴 I -인류, 문화와 농업의 기원』, 2003, p.194~280.

다.

결국, 기온변화로 인하여 해수면 변동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고, 인간생활은 물론 식생과 기후 등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인근의 중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변동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1. 중국대륙 자연환경의 변화

중국의 해수면변동에 따른 자연환경의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는 편이다.

특히, 서해를 마주하는 요령과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산둥반도 주변은 3차례의 海進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 시점은 약 7,000 ~ 4,500 B.P.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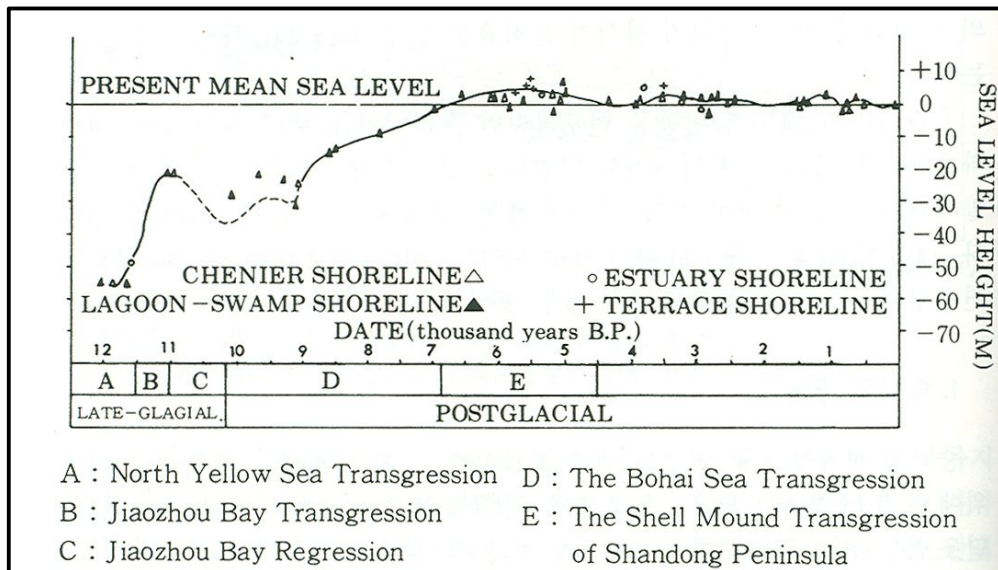
4,000 ~ 2,000 B.P., 1,000 B.P. 전후에 해당하며, 이 당시 해수면은 지금보다 높았다고 한다.

〈도면 1〉은 산둥반도의 해수면변동에 관한 그래프이다. 약 1만 2천 년 동안의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을 도식화하였는데, 10,000 ~ 6,000년 사이 해수면이 0.9 ~ 1.1m/yr의 속도로 상승하였으며, 6,000 ~ 5,000년 사이에는 지금의 해수면보다 약 3 ~ 5m 정도 높았다. 또한 약 4,000년경에는 현재의 해수면을 유지하다 그 이후로 잦은 오르내림을 되풀이 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¹⁶⁾

요동반도의 경우 식생대와 기후, 해안선의 변화는 약 8,000년 전후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서해안의 현상과 유사하며, 일본 죠몽시기의 海進期와도 일치한다.

15) B.P.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법에서 사용되는 기준연대를 일컫는 용어로서, B.P.의 기준연대는 대체로 1950년으로 설정된다.

16) Geng Xiushan, Wang Youngji & Fu Mingzuo, 「Holocene Sea-level change oscillation around Shandong Peninsula」, 『Late Quaternary sea-level changes』, 1987, p.81~96.



도면 1. 산둥반도 주위의 전신세 해수면 변동곡선(Geng et al, 1987, p.94)

또한 중국의 양자강유역의 해수면 변동에 대한 극상기는 약 7,000년경으로 알려져 있으며¹⁷⁾, 중국 남부의 복건성지역은 3기 이후 활발한 지각운동이 있었고 4기에 들어서면서 지각운동이 더 심해졌다고 하였다. 중국학자에 의하면, 10,000년경은 -30m, 9,000년경에 이르면 -28m, 7,000년경은 -10m였다가 6,200년에 이르면 최대해진이 일어났으며, 이 후 5,700, 2,200, 1,400년경에 각각 +4.5, +1.5m, +0.6m의 해수면이었다고 보고하였다.¹⁸⁾

결국, 중국대륙의 해수면 변동연구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는 대체로 약 6,000년경에는 해수면이 극상승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해진현상은 후빙기 이후 기온상승에 따라 해수면도 상승하게 되었으며, 일부 지각의 변동과 국지적인 해수면 변동 즉 태풍이나 해일, 쓰나미와 같은 기후의 변화로 인한 해수면의 상대적 상승의 증거일 것으로 여겨진다.

17) Yang Huairan & Chen Xiqing, 「Quaternary trasgression, eustatic changes and movements in north and east China」, 『Late Quaternary sea-level Changes』, 1987, p.9~25.

18) Huang Zhenguo, Li Pingri, Zhongying & Zong Yongqiang, 「Sea-level changes along the coastal area of south China since late Pleistocene」, 『Late Quaternary sea-level changes』, 1987, p.142~154.

2. 일본열도 자연환경의 변화

일본열도의 지형은 현재에도 그러하듯이 활발한 지구조의 운동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이는 일본열도가 태평양 연안의 태평양판과 유라시아 판의 경계에서 대규모의 지진들이 발생하며, 해저의 지구조운동의 활발로 지하의 마그마가 분출되는 화산활동도 자주 나타나는 것이다.

일본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나라로, 해안선은 단조롭지 않으며 일본과 접하는 바다들은 대체로 내해의 성격이 강해서 일본의 해수면상승은 지역차가 매우 클 것으로 여겨진다¹⁹⁾.

일본 해수면변동연구는 바다 속에서 확인된 海底林의 존재를 통해 본격화되었다.

우리나라와 연접한 동해안연안의 富山縣에서는 여러 지점에서 海底林이 확인되었고, 특히 入善町 吉原 앞바다 수심 40m 지점에서 海底林이 발견되었다. 이는 전혀 생각지도, 알지도 못한 시기에 森林지역으로 존재 하던 곳이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 밑으로 매몰된 것이다. 또한 동해안 연안에 위치한 富山縣에서 다양한 시기의 海底林이 발견되었다. 조사결과 나무의 두께는 15~20cm가 가장 많았으며, 탄소연대는 10,150 ± 230 B.P.로 나타났다.²⁰⁾

이 외 일본의 특정 유적을 중심으로 해수면 변동을 살펴보면 先刈貝塚의 예를 들 수 있다. 愛知縣 知多半島에 위치하는 패총은 전철역사건립을 위해 지하 약 -13m정도 파내려 간 후, 확인되었다. 유적의 탄소연대측정에 따른 결과는 8,590 ± 230 B.P.경 해수면이 -12.85~-13m, 8,330 ± 260 B.P.경에 -9.5~-10m의 높이였으며, 7,710 ± 280 B.P.에는 -11.50~11.60m 에 해당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남해안과 마주하는 九州의 長岐縣 북서부에 위치한 鷹島遺蹟은 해저 25m에 있는 해저유적으로, 죠몽시대의 패총유적이 확인되었다. 2층의 패각을 시료로 하여 탄소연대측정을 한 결과, 8,630 ± 105, 8,410 ± 105 B.P.의 연대가 측정되었다.²¹⁾

19) 신숙정, 『우리나라 남해안지방의 신석기문화 연구-동삼동·김해·남해도서지방을 중심으로-』, 1998, p.76.

20) 藤井昭二, 「埋没林と海水準變動」, 『季刊考古學』 15, 1986, p.21~24.

이동주, 『韓國 新石器文化의 源流와 展開』, 2006, p.47.

일본 제 4기학회의 일본 해수면 변동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약 10,000년 경 현재의 해수면에서 -40m였으며, 그 후 6,000년경에 이르기까지 연당 1cm씩 상승하였다고 한다. 6,000년경에는 현재 해수면보다 2~3cm정도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²²⁾

일본열도의 해수면변동에 따른 결과는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7,000~3,000 B.C.의 조몬 전·중기에 海進이 있었다고 여겨지며, 가장 極盛期는 6천년 전후로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한반도 자연환경의 변화

동아시아는 빙하시대 말기에 이르러서는 이미 생물종의 복합과정을 거치면서 현재 중부아시아, 중국 북부, 극단 동북지대로 확산하였다고 본다.

많은 체질인류학자들은 호모 에렉투스가 더운 중국 남부에 먼저 살게 되고, 그 후 동북쪽의 온대성 환경으로 이동하였다고 상정하고 있다. 이들은 들고 다닐 수 있는 도구복합체와 기동성을 중히 여기는 인류였다. 세석기라는 미세한 도구는 후빙기 당시 거의 어디서나 쓰이게 되는데, 가느다란 나무화살대나 두툼한 나무 손잡이든 어느 것과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응용성이 높은 도구였다.²³⁾

한반도도 이러한 흐름 속에 세석기를 특징으로 한 후기 구석기단계가 시작된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마지막 빙하기에 해당하는 시대로, 연대로는 약 20,000년~18,000년으로, 이 당시 해수면은 서해안의 경우 현재보다 약 150m 아래에 있었으리라 여겨지며, 중국 동부와 한반도 서해안이 육지로 연결되었으리라는 견해가 있다.²⁴⁾

빙하기 이후 충적세(Holocene)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해수면변동에 따른 증거가 확인되고 있는 실정으로, 유적의 예는 아래와 같다.

21) 이동주, 앞의 책, 2006.

22) 太田陽子, 米倉伸之, 「海岸線」, 『日本第4紀地圖』, 1987.

太田陽子, 海津正倫, 松島義章, 「日本における完新世相對的海面變化とそれに關する問題」, 『第4紀研究』, 1990, p.29~31.

23) Brian.M.Fagan 저, 이희준 역 『인류의 선사문화』, 1999. p.140~142.

24) 김연옥, 『한국의 기후와 문화』, 1985.

이동주, 앞의 책, 2006.

동중해안지역 자연환경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영랑호이다.²⁵⁾

영랑호 지하 바닥 12m까지의 꽃가루를 분석하였는데, 약 17,000년 ~ 15,000년경 현재 북한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한대성식물이 확인되어, 이 당시 동해안일대는 한랭한 기후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영랑호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략 10,000년 이전의 기후는 현재보다 훨씬 추웠으며, 해수면 또한 현재보다 하강해 있었다. 또한 7,000년 ~ 4,500년 사이는 비교적 따뜻한 시기였으며, 가장 極上期는 영랑호 炭素 安定同位體比 및 硫化物 함량비율로 5,500B.P.라는 데이터가 나왔다²⁶⁾.

동남해안에 있어서는 김해 수가리유적과 연대도유적, 동삼동패총의 현상들을 통하여 해수면의 변동을 알 수 있다.

김해 수가리유적의 보고자는 “제 IV층에서 나타난 磨耗貝殼層을 해수면의 상승결과로 보고하였다.²⁷⁾ 수가리패총 보고서에 의하면, IV층의 磨耗層은 해발 5.8m에 상당하는 III층 直下인 IV층 上部에서 두께 3~10cm의 퇴적상을 보이며, 磨耗貝層은 V~VI층 시기 이후에 형성된 것이 확실하다. 磨耗貝層은 해수면의 간만차로 인한 현상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하고 있다.

수가리 IV층은 수가리 2식 토기 즉 전면침선시문토기가 표식인 V층의 상층으로 탄소연대는 4,300~4,500B.P.에 해당된다.

또한 수가리에서 확인된 육상달팽이(깨알달팽이, 아기밤달팽이)로 해수면 변동을 고찰하기도 하였다²⁸⁾.

달팽이의 껍질은 이동시 대부분 깨질 정도로, 가볍고 얇은데, 완형이 확인되어 분명 생존하다가 그 자리에 그대로 묻혔다고 가정하였으며, 이들이 출토된 층을 물 위였다고 추정한 것이다.

이러한 육상달팽이는 I층과 V층에서 각각 확인되는데, V층이 조성된 시기에는 육지였다가 4,500B.P.를 전후한 시기 해수면의 상승으로

25) Yasuta.Y.M.Tsukada, 김준민, 이상태, 임양재, 「韓國에 있어서의 環境變遷史와 農耕의 起源」, 『日本 文部省 海外學術調査 中間報告書』, 1980.

26) 서울대학교 박물관, 앞의 보고서, 1984, 1985, 1986.

27) 정정원, 임효택, 신경철, 『김해 수가리패총』, 부산대학교 박물관, 1981, p.24~28.

28) 윤선·이연재, 「수가리 패총의 연체동물 화석군집과 해수면 변동」, 『한국 고생물학회지』 1, 1985, p.141~152.

바다가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연대도유적은 F~Ipit IVa, IVd 층에서 바다자갈이 섞인 잘게 부서진 패곡편이 해발 6~5m에 나타나고, P~Upit 5층의 제 2층에서 잔 바다자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해수면의 상승에 의한 현상이었으라 여겨진다.

동삼동 진입도로 확장구간 내 난간 보수지역 유적에서도 해침의 양상이 확인되는데, 조사지역 A에서 마지막 빙하기 이후 최대 해발 8.63m지점까지 해수면상승흔적이 확인되었다. II층의 바닷가 역석층이 그것으로, 모두 7개의 층으로 세분되었다.

모두 3개의 단구상 지형이 확인되는데, 2단구면은 해발 7~13m 지점까지 확인된다. 1단구면은 해발 5.5~8m의 높이에서 해침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²⁹⁾

하층에서는 용기문, 무문양, 압날·압인문이 출토하는 구상유구와 주거유적이 확인되는데, 이지역의 해수면 상승기는 전기이후의 시기로 예상된다.

상노대도유적에서는 3층과 4층 사이 지대가 낮은 쪽으로 검은 갯펄층이 간층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퇴적분석한 결과, 바닷물에 의한 퇴적임이 밝혀졌으며, 이 당시 해수면상승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때의 해수면은 지금보다 5m 정도 높았으리라 여겨진다. 바닷물에 의한 층적 갯펄층인 제 3층의 상부에서 단사선문 시문의 이중구연토기편들이 확인되어 봉계리식 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신석기 후기 단계에 해수면 極盛期 현상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이상 동남해안의 해수면 변동양상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한반도 동남해안은 언제부터 이 같은 해수면상승이 시작되었을까?

우리나라 해수면 상승의 구체적인 시기에 관해서는, 1999년 부산시립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동삼동 패총³⁰⁾유적에서 살필 수 있다. 유적에서는 생토면에 조성된 3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수가리 1식토기가 출토된 1, 2호 주거지와 무문양 및 용기문토기가 출토된 이른시기의 3호 주거지

29) 金宰佑, 「부산 태종대 진입도로 확장부지내 유적 발굴개요」, 『한국신석기연구』 제8집, 2004. 12, p.119~131.,

동아대학교박물관, 『태종대 유원지 진입도로 확장구간 내 문화재 발굴조사 개요』, 현장설명회자료, 2005.

30) 하인수, 「동삼동패총문화에 대한 예찰」, 『한국신석기연구』 7, 2004.

상부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혼입된 패층이 일정한 두께로 정연하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주거지 조성시에는 해수면의 상승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해 수가리 유적의 경우, 수가리 1·2식 토기의 상층에 磨耗貝殼層이 확인되어 이 이후임을 추정할 수 있다. V~VI층의 토기를 표식으로 하는 수가리 I식토기와 III~IV층의 침선문계토기를 표식으로 하는 2식 이후로는 해수면 상승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인수의 토기편년안에 대한 견해에 따르면, 수가리 I식토기는 3,500B.C., 수가리 II식은 2,700B.C., 용기문토기의 경우 6,000B.C.로 각각 상정하는 하고 있다.³¹⁾

즉, 한반도 동남해안 해수면변동은 3,500B.C.를 전후한 시점에 극상기를 맞이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 중국, 일본, 한국의 자료를 토대로 해진현상을 살펴보았다.

대체로 삼국의 데이터를 통하여 기원전 6천년을 전후한 시기에 해진현상이 시작되었으리라 짐작된다. 最極上期는 우리나라 봉계리식토기를 표식으로 하는 신석기후기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현재와 같은 해수면을 유지한 것은, 이중구연토기를 대표하는 신석기 후기~만기의 시기로 접어들면서라고 짐작된다.

또한 후기 구석기시대의 해수면이 지금보다 -150m에 이른다는 사실은 그 당시 서해나 남해 일부는 대륙으로 연결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차츰 기온의 상승으로 자연스레 빙하의 해빙현상과 국지적 기후의 변화(태풍 및 쓰나미 등)로 인한 조기~전기에 이르는 신석기시대에는 가령 해수면이 상승하는 시기에 직면하였으며, 자연스레 인간의 이동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또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현재 해저에는 잔존한 해저림의 존재는 조기~전기의 신석기시대에 이전 분명 바다아래에 인간생활의 유적이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증거는 앞으로 육지에 입지한 고고학적 유적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구의 기온변화에 따른 인간생활의 거주지 분석에 많은

31) 하인수, 『한반도 남부지역 즐문토기 연구』, 2006, p.51.

영향을 주리라 여겨진다.

III. 해수면 변동기의 동해안지역 유적과 출토유물의 양상

앞 장에서는 지구기온변화로 인한 동아시아 일대의 해수면변동을 살펴보았다. 해수면 상승으로 현재와 가까운 지형으로 갖추어지고, 생활터전도 자연스레 이동이 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해수면변동시기가 우리나라 신석기 조·전기의 시기와 관련이 있는바, 동해안지역에서 확인되는 이른 시기의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에 앞서 먼저, 선학들이 연구해 놓은 토기 편년 안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토기는 신석기시대 중 가장 많은 수량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기벽에 시문된 문양은 시기적 변화를 상징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해수면 변동시기 즉 현재의 해수면보다 높았던 시기가 대략 6,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상승기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면, 과연 이 시기의 신석기시대에서 확인되는 토기는 어느 연대에 해당되는지가 먼저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 한반도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토기의 편년

과연 해진기 당시 어떤 대표적인 유물이 출토되며, 그에 따른 한반도 동해안지역의 유적은 어떠한 곳에 위치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선학들의 편년작업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석기시대 편년작업은 대체로 토기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유는 신석기시대 유적 중 가장 많은 출토량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토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석기시대에 있어서 토기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 먼저, 시대의 편년을 살필 수 있다. 태토의 특징 및 기벽에 새겨진 혹은 부착된 문양의 다양화, 기형 등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적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그에 따른 학술적 발굴조사법과 과학적 연대분석자료 및 주변 국가와의 연계성 등의 자료를 통하여 세부적 토기의 편년안이 여러 학자에 의하여 검토되게 되었다. 두 번째로 지역성을 살필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 경기도 일대를 포함하는 중서부지역은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이다. 이들 토기의 대표적인 유적은 암사동, 미사리 등이다. 저부는 첨저, 원저의 형태

로 기형은 긴 발형으로 일명 포탄형으로 불리는 형태를 지니고 기벽에는 빗살로 그은 선문이 새겨진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해 동해안일대는 고성, 양양, 강릉, 울진 등에서 확인되는 신석기시대 유적이 대표된다. 토기는 평저의 저부와 함께 기벽에는 무문양 혹은 압날문 등이 새겨진 무늬가 대표적이며, 기형은 발, 웅, 호 등 다양한 편이다.

남해안일대는 경남을 포함한 부산일대의 패총유적이 대표적이다. 토기는 대체로 원저의 저부를 지니며, 문양은 자돌·압인문, 태선침선문이 새겨지며, 기형은 발, 웅, 호, 완 등 다양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석기시대 토기의 편년은 신석기연구에서 가장 많은 연구업적이 축적되어 있는 분야이다. 신석기시대 토기에 대한 연구는 해방 전 일인학자를 중심으로 연구가 논의되었으나 발굴조사를 통한 유적의 보고가 아닌 현재의 지표조사 수준에 미치는 것이라 토층 및 유적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부족하였다. 해방 후, Sample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서 부산 동삼동패총조사를 필두로 하여 본격적 발굴조사되어 층위에 따른 토기의 편년 안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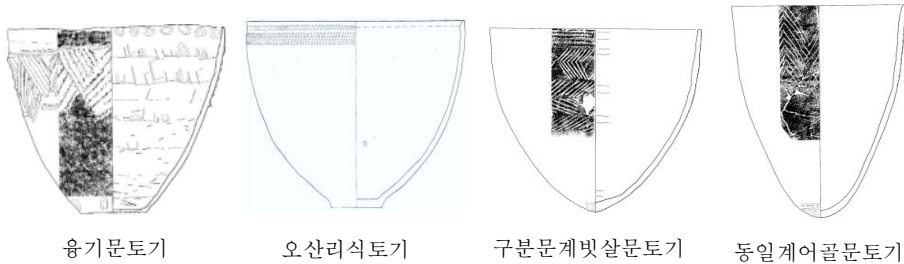
현재 한반도 토기의 편년 안은 여러 선학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제시되었으며, 현재는 한반도를 크게 중서부, 동해안, 남해안의 세부분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편년 안이 제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한반도 동해안일대를 한정하고 있는바, 대표적인 신석기시대유적을 통한 토기편년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해안은 고성, 양양, 강릉, 울진 등을 포함하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북부의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남으로는 경주, 울산 등지가 해당된다. 동해안지역의 토기의 편년 안은 다음과 같다.

〈표 1〉 동해안지역 분기별 토기편년과 문양별 특징³²⁾

분기	동해안 지역		비고
조기	용기문토기		10,000 ~ 6,000 B.C.
전기	오산리식토기	자돌, 압인문토기	6,000 ~ 4,500 B.C.
중기	구분계 빗살문토기	태선침선문토기	4,500 ~ 3,500 B.C.
후기	동일계어골문	어골문, 격자문	3,500 ~ 2,700 B.C.
만기	이중구연토기		2,000 B.C.



이상과 같은 편년 상에 따르면, 해진기 당시인 6,000 B.C.를 포함하는 시기에는 용기문 및 평저를 기본으로 하는 오산리식 토기와 자돌, 압인문을 기벽에 시문한 토기가 주류를 이룸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 토기가 출토되는 동해안지역의 유적을 살펴보고, 출토유물의 특징과 공통점을 연구해보도록 하겠다.

2. 동해안지역 유적과 출토유물의 양상

이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편년 안을 통하여, 용기문토기를 표식으로 하는 동해안지역의 이른 시기 유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공간적으로는 동해안지역으로 하였으며, 강원도지역과 경상남북도의 해안선 위치한 지역이 속한다.

동해안 지역은 북쪽으로 웅기 서포항 유적³³⁾을 중심으로 고성 문암

32) 한국고고학회, 앞의 책, 2007, p.48~58.

리³⁴⁾, 양양 오산리³⁵⁾, 지경리³⁶⁾, 가평리³⁷⁾, 강릉 초당동³⁸⁾, 울진 후포리, 경주 봉길리, 울산 세죽³⁹⁾, 우봉리⁴⁰⁾ 등의 유적이 발굴조사 되었으며, 이외에도 남해안으로 부산 범방⁴¹⁾, 울리⁴²⁾, 동삼동⁴³⁾, 김해 화목동 ⁴⁴⁾, 김해 수가리가 확인되었다.

이들 중 신석기 조·전기에 해당되는 유적은 약 4개소⁴⁵⁾이며, 특히 주거유적이 발견되는 유적은 동중부의 2개소 뿐이다. 신석기시대유적이 많이 확인되는 동해안지역에서 이와 같은 주거유적의 수량은 극히 적은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은 조·전기의 신석기시대 유적과 예를 간략하게 서술하고, 공반 유물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고성 문암리유적⁴⁶⁾

문암리 유적은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 1번지로 죽왕면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다.

고성군 내에 속한 문암리 유적의 입지는 강원도 동해안의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군으로 동으로 동해안, 서로는 태백산맥이 접하는 험준한 산

33) 사회과학출판사, 『고고민속론문집』 4, 1972.

34) 국립문화재연구소, 『高城 文岩里 遺跡』, 2005.

35) 서울대학교박물관, 앞의 보고서, 1984~1988.

36) 강릉대학교박물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양양 지경리 주거지』, 2002.

37) 국립문화재연구소, 『양양 가평리』, 1999.

38) 강릉시, 강릉문화재연구원, 『강릉 초당동 신석기유적』, 2006.

-----, 『강릉 초당동 유적 II』, 2006.

39) 황창한, 「울산 황성동 세죽유적」, 『한국신석기시대 생업과 환경』,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울산 황성동 세죽유적도록』, 2002.

40) 심봉근, 이동주, 『울산 우봉리 유적』, 동아대학교박물관, 1997.

41) 하인수, 『범방패총 II』, 부산시립박물관, 1996.

42) 김정학, 정정원, 『금곡동울리패총-암읍주거유적-』, 부산대학교박물관, 1980.

43) 국립중앙박물관, 『동삼동패총 I』, 2005.

-----, 『동삼동패총 II·III』, 2004.

44) 이영주, 심재룡, 김일규, 김수환, 『김해 화목동 유적』, 경성대학교박물관, 2000.

45) 발굴조사되어 보고서가 간행된 유적 중 신석기시대 초기~전기에 해당되는 유적은 고성 문암리유적, 양양 오산리유적, 울산 우봉리유적, 울산 세죽유적의 4개소이다.

46)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5.

악지대가 병풍처럼 두르고 있으며, 태백산맥과 고성군 내의 평야가 끝나는 해안사구에 입지한다.,

발굴조사기간은 1·2차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998년~1999년 1차 발굴을 하여, 신석기시대 주거지 2기 및 야외노지 5기 등이 확인되었다.

2차 조사는 2002년 10월~2002년 12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신석기시대 주거지 3기, 매장유구 1기, 야외노지 1기, 수혈 3기의 신석기시대 전기의 용기문토기뿐만 아니라 무문양토기, 매장유구에 부장된 결상이식과 접시형토기, 결합식조침, 석도 등의 성과를 얻게 되었다.

고성리 유적은 오산리유적에서 확인된 용기문 및 압인·압날문, 무문양토기와의 연계성을 파악하는데 중요유적으로 손꼽힌다.

토층은 모두 10개의 층으로 나뉘어지며, 신석기시대 유구층은 VII층과 IX층이다. VII층은 다시 2개의 층으로 나뉘며, VII-1층은 '98년-1·2호주거지, VII-2층은 '02년-1·5호주거지, 마지막으로 IX층에서 '02년-7호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을 통한 유적의 대략적인 시기는 초기~중기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조성된 유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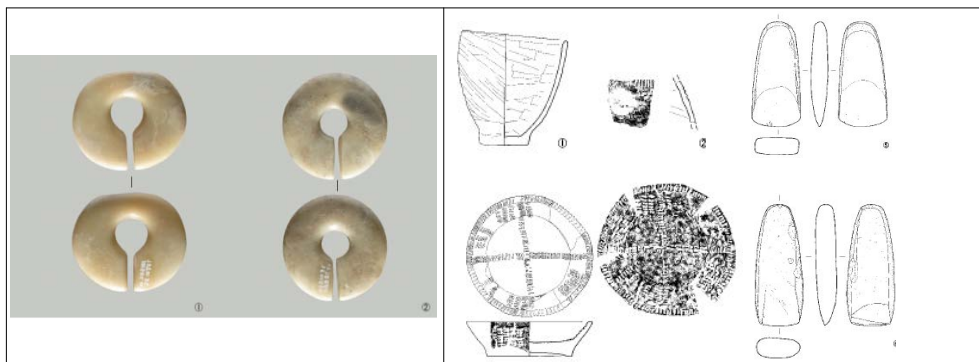
고성 문암리 주거유적의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고성 문암리 주거지 속성표

내용 유구명	층위	평면형태	규모(cm)			노지			바닥면	비고	
			길이	너비	깊이	형태 (위치)	규모(cm)				
							길이	너비			깊이
'98-1호	VII-1	원형	385	360	20	장방형 (중앙)	90	85	8	불다짐	'98-2호와 중복 노지-할석형
'98-2호	VII-1	말각방형	390	390	15	장타원형 (중앙)	105	75	·	생토면	노지-할석형추정
'02-1호	VII-2	원형	(450)	(450)	20	(중앙)	·	·	5	불다짐	노지-할석형
'02-5호	VII-2	말각 장방형	(225)	223	20	·	·	·	·	불다짐	주거지 반유실
'02-7호	IX	장타원형	770	450	18	장타원형 (북쪽)	100	90	10	불다짐	노지-할석형

고성문암리 신석기시대 주거지는 총 5기로 VIII·IX층에서 확인된다. 보고자는 평면주거지형태의 다양성, 주거지의 중복, 층위의 차이 등으로 문암리인들의 장기간 취락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거지는 모두 수혈식이며, 바닥시설은 '98년-2호를 제외한 모두 점토로 한 겹 덧씌운 다음 불다짐을 하였다. 노지는 5기 모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3기만 확인되었다. 3기 모두 할석형으로, 대체로 주거지의 중앙에 위치하지만, '02년-7호는 북쪽에 치우쳐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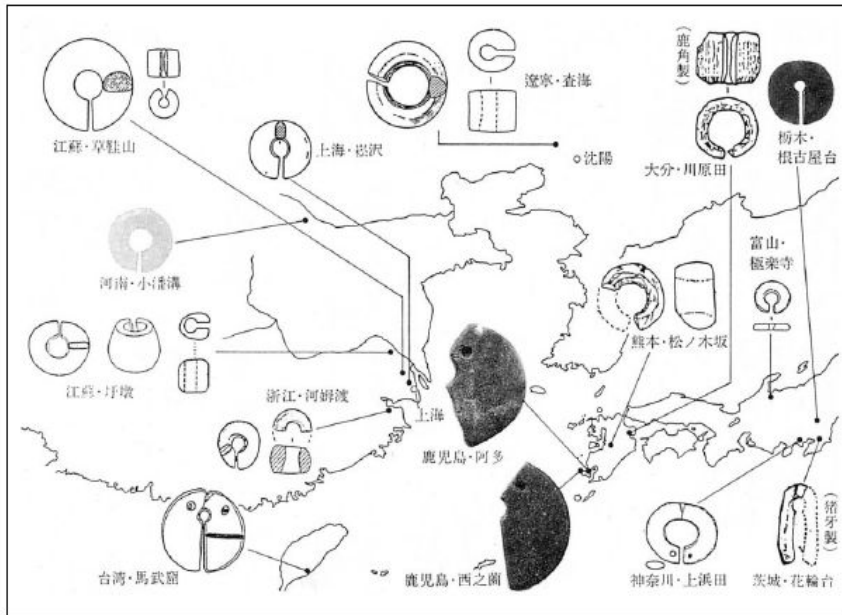
또한 매장유구가 VII-2층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으로, 규모는 반정도가 유실되어 정확하지는 않으나, 추정 길이 150cm, 넓이 84cm이며, 장축방향은 남북방향으로 머리는 바다를 향하도록 하였다. 시신은 범방패총의 경우와 같이 상체는 펴고 다리는 X자로 꼬아서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부장유물은 玦狀耳飾 1쌍, 소형발, 양어깨에 놓인 석부가 있다. 특히 결상이식은 출토량이 매우 적으며 한정된 지역에서만 발견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도면 2. 고성문암리 '02년-3호 매장유구 출토유물

보고자는 중국 동북지방 및 연해주 지역의 연관성을 염두해두고 있다. <도면 3>을 살펴보면, 옥제 결상이식은 흑룡강성 소남산유적과 요녕성 사해유적에서 출토하였으며, 특히 소남산의 玉玦은 연해주·아무르강유역의 玦로 주목되고, C14년대측정에 의하면 기원전 5,000년기 中頃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과로 고성 문암리 출토 결상이식 또한 중국 동북지방과 연해주·아무르유역의 玉玦이 반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7)

47) Brian.M.Fagan 저, 이희준 역, 앞의 책, 1999, p.238~239.



도면 3.결상이식의 출토 범위 東アジアの古式珥耳飾の分布圖(中山, 清陸, 2002)

이상으로 문암리 유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문암리 주거지의 선후관계를 통하여, 시기를 구분하고, 출토 유물을 주거유적과 층위별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암리 주거지는 총 5기가 확인되었다. 모두 중복된 양상이다. 선후관계는 다음과 같다. '02년-7호 → '02년-1호, '02년-5호, '02-8호수혈 → '98년-2호 → '98년-1호의 순이다. 층위별 주거지 내 출토유물 양상은 도면과 같다. 단, 8호 수혈의 경우, 주거유적은 아니지만 단일유구로서 결합식조침과 석부의 다량출토된다. 석기저장공으로 추정되어, 본고에 기재하도록 하겠다.

IX층에서 확인된 7호 주거지의 토기는 모두 무문양토기이며 평저토기로, 석기는 마제석부와 결합식조침 및 어망추, 석도, 연석이 있다.

VII-2층의 '02년-1호 '02년-5호주거지 중 후자는 출토유물이 없기에 본고에서 제외하였다. '02년-1호주거지의 토기는 평저의 무문양 및 용기문토기, 압날·압인계열의 평저토기가 확인되었으며, 석기는 마제석부, 그물추, 결합식조침이 있다.

8호수혈은 석기저장공으로 추정되며, 내부에는 마제석부를 비롯하여, 결합식조침 37점이 출토되었다.

VII-1층의 '98년-1호 · 2호주거지는 동일한 층위에서 확인되었으나, 중복으로 2호가 선축된 후, 1호가 후축되어 선후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선축된 '98년-2호주거지는 무문양토기 구연부편과 평저저부 및 압인계의 토기편이 출토되었으며, 석기는 마제석부, 불명마제석기, 그물추가 확인되었다.

'98년-1호주거지는 무문양 구연부와 마제석부 및 고석이 출토되었다.

토기는 무문양토기 평저토기 → 압인·압날계 평저토기로 이어지며, 석기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이 마제석부, 결합식조침이 꾸준히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문암리 유적 층위별 출토유물의 양상과도 공통된다.

〈표 3〉 고성문암리 층위별 토기출토 현황⁴⁸⁾

型式 層位	無文樣土器	朱漆土器	隆起文土器	豆粒文土器	押捺· 押印土器	口脣刻目土器	沈線文土器	把手	底部	數量
X	5									5
IX	57	13							9	79
VIII	5	3	1		15	1		3		28
VII-2	170	24	5	1	41	1		2	21	265
VII-1	114	21	37	3	83	3	3	5	32	301
VI	4	2	1		7	3			1	18
III	14	2			12		14		4	46
II		1					1			2
I	1	1							3	5
計	370	67	44	4	158	8	18	10	70	749

*보고서 미수록 유물 포함

상기의 표는 문암리 유적 층위별 토기출토 현황표이다. 가로축은 문양별이며, 세로축은 층위별로 구분하였다.

전체적으로 무문양토기의 출토율이 압도적이며, 그 다음으로 압날·압안계 토기의 순이다. 층위별은 VII-1층이 301점으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며, 그 다음으로 VII-2층이다. 모두 문암리 주거유적이 확인되는 층

48)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5, p.227.

으로 문암리 인의 주 생활문화층이라 짐작된다.

주거지별 출토유물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토기의 변화는 무문양토기→압날·압인계토기로 변화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변화단계는 상기의 표로 통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무문양토기는 VII-2층을 기점으로 상층부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이고, 반면 압날·압인문토기는 동일층을 경계로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침선문계의 토기도 이후 등장함을 알 수 있다.

〈표 4〉는 문암리유적 층위별 석기출토현황으로서 가로축은 석기기종이고, 세로축은 층위이다.

〈표 4〉 고성문암리 층위별 석기출토 현황⁴⁹⁾

種類 層位																									計	
	石斧	石鐮	石槍	磨石	礪石	砥石	敲石	石刀	石鋸	石鏃	石劍	組合式 釣針	石錐	漁網 錐	組合式 釣針	裝身 具	石材	骨柄	剝片	刺 器	未完 成品	不明 石器	珠狀 耳飾	骨角 器		骨鐮
X																									0	
IX	3				2	1		1				5		1			5		5		1					24
VIII					1	1				1		1							2							6
VII-2	15	5		2	1	4		4		1		45	1	2	4		11	4	17	7	5	2				130
VII-1	3	8	3	2		2	1	2	2		1	14		7		1	10	4	21	8	5		2	1		97
VI		1												2			1				1					5
III		1												3					4	1						9
II		1																		1						2
I																					1					1
計	21	16	3	4	4	8	1	7	2	2	1	65	1	15	4	1	27	7	49	17	13	2	2	1		274

가장 많은 출토량을 나타내는 것은 결합식 조침이며, 다음으로 박편, 석부, 석촉의 순이다. 결합식 조침은 VII-2층의 45점으로 많은 수량이 확인되며, VII-1층에서 14점을 끝으로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결합식 조침의 수가 줄어드는 VII-1층을 경계로 어망추의 증가가 확인되는데 이는 어로방식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토기의 양상과 비교할 때, 무문양토기 및 압날·압인문계의 평저토기를 사용한 문암리인들은

49) 국립문화재연구소, 앞의 보고서, 2005, p.235.

주로 결합식 조침을 이용한 어로생활이 주된 생활양식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도면 8, 9-1, 9-2. 참조>

문암리 유적의 시기는 오산리와 비교하여, 공반유물의 용기문, 무문양 등의 이른시기에 해당되는 유물로서, 추정하면 신석기 초기~전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2) 양양 오산리유적⁵⁰⁾

양양 오산리유적은 현재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의해 현재 3권의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오산리 유적의 성격은 이리하다.

강원도 양양군에 위치한 오산리유적은 1978년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되었으며, 이후, 1981년~198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서울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오산리유적의 입지는 해안으로부터 약 200m 떨어져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해안사구에 입지하고 있는데, 1977년 雙湖 매설시 유적의 중간부분이 유실되어 현재 양분되어 있다. 유실된 부분을 중심으로 동쪽은 A區, 서쪽은 B區라 명시하였다.

유적의 층위는 비교적 양호한 A區를 중심으로 표토와 생토층을 제외한 모두 6층으로 구분되고 있다. 출토유물로 보았을 때, I 층인 청동기시대문화층, II~V 층의 신석기시대문화층으로 대별된다. V 층은 다시 7개의 小層으로 구분되는데, 이 層間의 시간폭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고자는 신석기시대 유물포함층을 크게 3개의 문화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분류의 기준은 출토유물의 성격에 따랐으며, 최하층인 V 층의 1문화층, 비유물 포함층인 IV 층을 사이에 둔 III 층의 2문화층, II 층의 3문화층으로 나누었다.

유구는 주거유적과 적석유구가 있다. A區의 주거유적은 모두 V 층에서 확인되었으며 9기, B區에서는 II·III 층에서 각각 1기씩이 확인되었다.

주거지별 속성은 아래의 표와 같다.

50) 서울대학교박물관, 앞의 보고서, 1984~1988.

〈표 5〉 양양 오산리 주거지 속성표

	호수	층위	평면 형태	직경(m)	면적 (㎡)	노지			바닥면	비고
						형태 (위치)	규모(cm)			
							길이	너비		
A 區	1호	V-1	원형	2.6~2.7	6.7				점토로다진 후, 불다짐	
	2호	V-2	장타 원형	5.9~7.2	31.3	?			점토로다진 후, 불다짐	노지- 할석형
	3호	V-3	타원형	5.5~6.8	31.9	장방형 (중앙, 2기)	95 70	60 70	점토로다진 후, 불다짐	노지- 할석형
	4호	V-3	원형	7	33.6	원형 (중앙)	100	70	점토다짐	노지- 할석형
	5호	V-4	?						점토다짐 (바닥만남은상태)	노지- 할석형
	6호	V-5	원형	3.8	10.9	?			점토다짐	노지- 할석형?
	7호	V-5	원형	4	12.5	타원형 (중앙)	70	50	점토로다진 후, 불다짐	노지- 수혈형
	8호	V-7	타원형	3.4~4.1	10.1	타원형 (중앙)	95	85	점토로다진후, 불다짐	노지- 할석형
	9호	V-7	원형	2.5~2.7	6.8	타원형 (중앙)	80	65	12,000±50 B.P.	노지- 할석형
B 區	1호	III	?	2.3~4	9.2				점토다짐	
	2호	II	부정 원형	4.8~5	24				4360±50 B.P.	서해안식 즐문토기출토

〈표 5〉는 양양 오산리 주거유적에 대한 일괄표이다.

주거유적의 평면형태는 대체로 원형 혹은 타원형을 이룬다.

내부시설로는 대부분 중앙의 할석형 노지를 갖추고 있으며, 구조는 지상가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A區의 2·4·6호주거지는 중복의 양상을 띠는데, 층위상 6호→4호→3호의 순이다. 유구의 형태는 원형 → 타원형으로 변화되며, 모두 중앙에 할석형 노지를 갖추고 있다. 바닥시설은 2호의 불다짐을 제외한 모두 점토다짐을 한 형태이며, 모두 지상식 가옥의 구조이다.

B區는 전체유구배치도가 보고되어 있지 않아, 배치양상은 알 수 없으나, 모두 2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특히 B區에서는 서해안식 빗살문토기(전면시문침선문토기)와 압날·압인, 무문양토기의 선후관계를 뚜렷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어 학

계의 주목을 끌었다.

Ⅱ층의 2호주거지를 비롯, 동일 층위 출토 토기편은 모두 서해안식 즐문토기의 특징인 삼부위 침선문계에 첨저의 즐문토기이다.

반면 하층인 Ⅲ층의 1호 주거지와 동일 층위 출토유물은 압날·압인계 토기 및 무문양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들의 선후관계가 확실해졌다.

양양 오산리 유적의 특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첫째, 주거유적 모두 지상 가옥의 형태이다. 보고자는 이러한 연유를 오산리인의 가옥구조 전통으로 여기고 있다. 두 번째, 오산리 출토 흑요석이다. 우리나라 흑요석 산지는 제주도, 울릉도, 영일만지역, 咸南 西湖津지역, 咸北 명주·길주지역, 백두산지역, 咸北 회령지역 등이 알려져 있다.

오산리유적 출토 흑요석은 백두산지역을 산지로 하였던 것이 분석결과 밝혀졌다. 이로써 오산리 1문화층 주민은 백두산지역과의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상으로 오산리유적을 개괄적으로 언급해 보았다. 다음으로 주거지별 출토유물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오산리 A區의 주거유적은 모두 V층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유물을 통한 주거지간의 큰 시기차는 없다. 토기는 대체로 평저계의 무문양 및 압날·압인계문의 토기가 공통적으로 확인되며, 석기로는 결합식 조침, 석도의 순으로 출토하였다.

오산리 B區 Ⅱ·Ⅲ층에서 각각 1기씩 총 2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Ⅲ층의 1호주거지는 무문양토기와 결합식 조침, 석도 등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또한 상층인 Ⅱ층의 2호주거지는 첨저의 삼부위 침선문계 즐문토기와 어망추가 출토되었다.

다음으로 오산리 유적 층위별 출토유물양상을 도면 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상부로부터 I층으로 명명하였으며, 모두 6개의 층으로 구분된다.

I층은 청동기시대층으로 점토대 토기 및 무문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Ⅱ층부터 최하층까지는 신석기시대 문화층이고, Ⅳ·Ⅵ층은 순수한 細沙層으로 비유물포함층이다.

Ⅱ층은 침선문계의 즐문토기가 출토된다. B區 2호주거지가 확인된다.

Ⅲ층은 무문양 평저계와 압날·압인문계의 토기가 확인된다. 석기는 결합식조침 및

석부, 석도, 어망추가 출토된다. B區 1호주거지가 이 층에 해당된다.

V층은 모두 7개의 층으로 세분되며, 상부층으로부터 V-1층로 명명하였다.

토기는 대체로 무문양토기와 압날·압인계의 토기로 대별되며, 석기는 결합식조침, 그물추, 석부, 석도 등이 출토된다. A區의 9기의 주거지가 모두 이 층에서 확인되었다.

오산리 유적의 토기는 대체로 평저계 무문양 및 압날·압안계 토기가 확인되지만 Ⅱ층은 서해안식 첨저의 전면시문 침선문계 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어, 토기의 층위별 선후관계의 파악이 용이하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 중서부지역과 중동부지역의 문화를 잇는 연결고리가 부재하였는데, 오산리 유적을 시작으로 양양 가평리, 지정리, 강릉 초당동 출토 침선문계를 사용한 신석기인의 발견은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석기는 V층 평저계 무문양 및 압날·압안계 토기와 공반된 결합식조침이 가장 많은 수량으로 확인되며, 그 수량은 오산리 보고서 1을 보면, 38점이 출토되었다. 그 다음으로 석도가 18점의 순이다.

이 외 Ⅱ·Ⅲ층의 석기출토량에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수량은 파악할 수 없으나, 도면 을 보면, Ⅱ층에서 확인된 B區의 2호 주거지에서 전면시문첨저 빗살문토기가 확인되며 공반 석기류는 모두 어망추이다.. 반면, 평저계 무문양 및 압날·압인계토기가 확인되는 주거지의 경우 결합식 조침이 단연 많은 출토량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1·2문화층(Ⅲ·V층)의 오산리인들은 평저계의 무문양, 압날·압인계토기를 사용하면서, 결합식 조침을 사용하여 어로생활을 영위하는 문화였으리라 짐작된다.

반면 3기 문화층(Ⅱ층, B區의 2호 주거지)에 거주하던 오산리인은 전면시문침선문계첨저줄문토기(서해안식 줄문토기)를 사용하면서, 주로 어망추로 어로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오산리유적의 시기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를 통하여, 상한 $12,000 \pm 50$ B.P. ~ 하한 $4,360 \pm 50$ B.P.에 해당된다.

3) 울산 우봉리유적⁵¹⁾

동아대학교 박물관에서 1995년 8월 14일부터 동년 9월 15일까지 우봉리지역을 발굴조사하였다.

울산 우봉리유적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울산시 온산면 우봉리 11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는 유적이 온산공업단지 내에 포함되어 십년가까이 방치된 채 있었으나, 당시 조선기자재 건립부지로 예정되면서 이 일대의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거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유적의 입지는 서쪽의 대덕산(해발 152m)에서 시작된 낮은 야산들이 크고 작은 계곡평야를 형성하면서 해안선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데, 동쪽에는 대정리, 원산리, 방도리 등 산기슭의 해안평야가 펼쳐져 있다.

우봉리 유적은 이런 해안변에 돌출한 구릉의 남서 사면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 일대는 아주 평단한 구릉상의 대지를 형성하고 있는데 우봉리라는 지명도 지형적 특징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유적의 층위는 모두 5개로 나뉜다.

상부로부터 I 층은 흑갈색 부식토층으로 근년 채소밭으로 경작되던 곳이었다. II 층은 흑색토층, III 층은 유물포함층으로 신석기시대 토기와 석기가 출토된다. IV 층은 적갈색 점토층, V 층은 생토층이다.

특징적인 점은, 우봉리유적의 II 층인 흑색토층의 확인인 점이다.

조사자는 이 토층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는 잘 확인되지 않는 층이지만, 요동반도의 경우 대부분의 신석기시대 지층에서 확인된다.

흑색토층을 경계로 우봉리 신석기유적의 연대를 짐작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즉 흑색토층은 한때 무성했던 식물이 대량으로 썩거나 혹은 쌓여 형성된 지층으로 여기고 있다. 동일 토층의 예는 중국 오녕성지역에서 확인되는데 대략 7,500 B.P.경에 형성되었다는 중국의 연구⁵²⁾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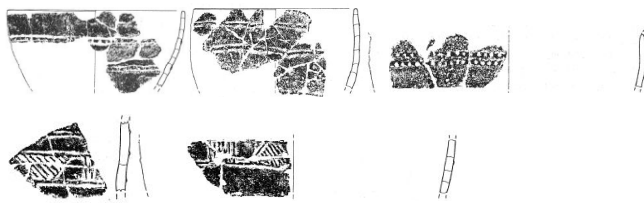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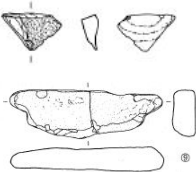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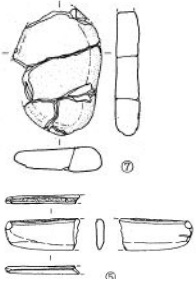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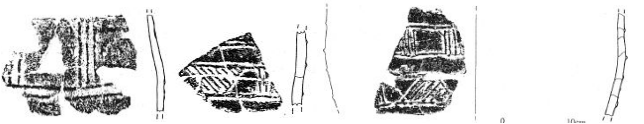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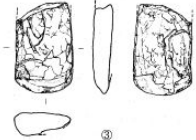
따라서 흑색토층의 하층에서 유물이 출토되는 현상을 통하여 대략적인

51) 심봉근, 이동주, 앞의보고서, 동아대학교박물관, 1997.

52) 周琳 編, 『東北氣候』, 1991.

연대추정 참고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아직 울산지역 일대 신암리 유적을 제외한 이른시기의 주거유적이 확인된 예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용기문토기의 확인은 주거유적 존재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특히 단일층의 뚜렷한 신석기문화층이 확인된 점은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토기류	석기류
용기문		
공열문		
용기 + 침선문		
저부류		

도면 4. 울산 우봉리유적 출토유물

본 유적에서는 유구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물포함층에서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토기와 석기가 출토되었다.

토기는 무문양토기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문양이 있는 것들 중에서는 용기문토기가 주를 이룬다. 또한 저부를 살펴보면, 모두 평저의 무문양 토기편들이다.

공반석기는 소형마제석부와, 결합식 조침, 연석 등의 순으로 출토되었

다.

출토유물에 대한 정확한 수량은 알 수 없으나, 상기의 결과는 보고서에 따른 결과로서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유적에서도 평저계의 무문양 및 용기문토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은 결합식조침을 이용하여 어로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 유적의 시기는 대략 토기의 가장 이른 단계인 오산리를 기준으로 상한을 잡을 수 있으며, 그 연대는 대략 $7,120 \pm 700$ B.P.로 상정할 수 있으며, 하한은 첨저토기가 시작되는 암사동의 $6,230 \pm 110 \sim 6,050 \pm 105$ B.P.의 시기를 참고할 수 있다.

4) 울산 세죽유적⁵³⁾

세죽유적은 행정구역상 울산시 남구 황성동 세죽 620번지 일대에 소재하는 신석기시대 유적이다.

조사는 1997년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에서 시굴조사하고, 2000년 상기 박물관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세죽유적은 현재 보고서가 간행되지 않은 상태로,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으나, 2001년 간행된 도록을 통해서 출토유물과 토층의 개괄적 소개로 대략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적의 입지는 외항강이 유입되는 작은 만(울산만 아래에 위치)의 동북쪽이며, 유물이 분포되는 지점은 바다에 인접한 해발 10m의 낮은 구릉 사면부에 해당된다.

지리적으로 만을 형성한 세죽리는 연평균 $13 \sim 14^{\circ}\text{C}$ 로 비교적 온난하고, 굴 · 전복 · 홍합 · 해삼 등의 해산물을 획득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농어, 송어, 감성돔, 뽕에돔, 고등어, 꽂치와 같은 외해성 어류와 회유성 어류인 연어와 방어가 포획된다.

유적의 층위는 4개의 층으로 크게 나누어지며, 유물이 포함된 층은 II ~ IV층이다.

상부로부터 I 층은 표토층을 포함하여 자갈이 여러 층으로 두텁게 형성된 층이다. II 층은 점토가 약간 포함된 사질토층으로 미세패를 포함한

53)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앞의 도록, 2002.

다.

Ⅲ층은 4개의 층으로 세분된다. Ⅲ-1층은 파쇄된 패각이 조금 혼입되고, 큰돌과 굵은 모래가 많은 사질토로 이루어졌으며, 폐사된 조개의 군집과 미세패, 산호가 출토된다.

Ⅲ-2층은 파쇄된 패각이 다소 혼입된 사질토층이며, 다량의 유물과 산호가 출토되었다. Ⅲ-3층은 유기물에 사질토가 미량 혼입된 층으로 암갈색을 띤다. 내부에서 탄화된 도토리와 흙합, 굴, 고둥 등이 출토되었다. Ⅲ-4층은 흑갈색 점토층 속에 흙합을 주체로 하는 셀벨트가 형성되어 있으며, 잘게 파쇄된 토기편이 출토되었다. 마지막으로

Ⅳ층은 흑갈색 점토층으로 미량의 숯과 목질을 포함하며, 소량의 유물이 출토된다.⁵⁴⁾

세죽유적은 해수면 아래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의 유물포함층으로, 최하층이 셀벨트를 이루고, 파쇄된 패각과 사질이 혼합된 층이 주를 이룬다. 또한 탄닌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저습지나 바닷가에 설치하는 도토리저장고가 확인된다. 따라서 물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은 지역이었을 것이다.

세죽유적에서 확인된 유구는 신석기시대의 패총유적과 도토리저장고로 추정되는 원형수혈 18기이다.

출토유물은 토기와 석기가 확인되었으며, 토기는 용기문토기, 자돌, 압인, 침선문계의 문양을 지닌 유물이 출토되었다. 토기로 살펴보면 초기~중기까지의 패총유적이라 짐작된다. 또한 토제품으로는 토우가 확인된다.

저부는 많은 양이 출토되었다.

동체부 토기편과 직접적으로 접합되는 것은 없으나, 대체적으로 평저가 많으며, 원저는 소량이 확인되었다.

석기는 결합식조침, 석부, 석촉, 석검형 석기, 지석 등의 순으로 출토되었다.

결합식조침의 경우, 축부와 침부가 각각 출토되었으며, 축부는 돌 혹은 뼈를 가공하여 만들었으며, 침부는 모두 뼈로 만들었다.

보고서의 미발간으로 정확한 유물수량이나 층위는 알 수 없으나, 도록에 기재된 자료를 중심으로 세죽유적 출토 토기류의 층위와 출토량을 아

54)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울산 황성동 세죽유적 도록』, 2001.12.

래의 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6〉 세죽유적의 층위별 토기출토 현황

층위 \ 문양	용기문	자돌문	압인문	침선문	구순각목	파수	수량
Ⅱ-1d	11		1	3	1		16
Ⅱ-2	63	1	5	16	1	1	87
Ⅲ-1	1242	65	84	200	42	8	1,641
Ⅲ-2a	59	17	4	11	3		94
Ⅲ-2b	296	22	36	66	5	6	431
Ⅲ-3a	207	48	18	4	1	4	282
Ⅲ-3b	5						5
Ⅲ-3c	151	9	14	26	3	2	205
Ⅲ-4	33	6	3	6	1	1	50
Ⅳ	6		1				7
수 량	2,073	168	166	332	57	22	

〈표 6〉을 살펴보면, 용기문토기가 압도적인 수량으로 확인되는 상태이며, 다음으로 침선문, 자돌문의 순이다. 층위상으로는 Ⅲ-1층에서 모든 문양의 토기의 수량이 다른 층위에 비해 월등하다. 사용시기의 집중화보다는 2차적인 환경의 요인으로 짐작된다. 이 점은 앞으로 주지할 필요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저부는 평저계로서 세죽인들은 대체로 용기문 및 자돌·침선문의 평저토기를 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석기는 전체적인 출토수량과 층위에 대한 자료의 미비로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어로 도구로서 결합식 조침의 수량이 우세한 반면, 어망추는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았다는 점은 상기할 만하다.

세죽유적의 시기는 토기기벽에 부착된 탄화물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 상한 $5,350 \pm 100$ ~ $5,250 \pm 100$ B.P. 였다. 이 결과 세죽유적은 짧은 기간동안 존속되었으며, 이 당시 세죽인들은 평저계의 용기문 및 자돌·침선계의 토기를 사용하면서, 어로생활은 결합식 조침을 이용하여 낚시로서, 영위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으로, 동해안지역 중 신석기 초기~전기의 유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동해안 이외의 지역 중 부산, 경남일대의 해당시기 유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5) 동해안 이외 지역

·부산 범방유적⁵⁵⁾

범방패총은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197번지 일대에 위치한다.

조사는 1991년 부산시립박물관에서 불분명한 유적의 성격규명과 함께 남해안지역 신석기문화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시작되었다.

조사지역의 위치는 김해수가리패총으로부터 남으로 약 1km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북정패총에서는 북으로 약 5.5km 떨어져 있다.

범방패총의 입지는 낙동강 하구에 자리잡은 해발 241m의 錦屏山 말단 부인 낮은 구릉상 남사면에 입지하고 있으며, 錦屏山 북사면에는 수가리패총이 위치하고 있다.

패총은 낮은 구릉의 남쪽 사면을 따라 길게 형성되어있으며, 잔존상태로 규모는 길이 50m, 너비 30~40m 정도로 추정된다.

층위는 모두 16개층으로, 지점에 따라 다른 양상도 확인된다. 층위는 복잡한 양상이지만, 대체로 시간의 흐름을 잘 반영해 주는 퇴적양상이다.

토층은 다음과 같다.

상부로부터 I 층이라 명명하였으며, 신석기시대 유물은 II 층부터 확인된다.

II 층은 이중구연 토기와 단사집선문토기가 중심을 이루는 순패층으로 쉼 pit에 고루 형성되어 있다. III 층은 출토유물이 없으며,

IV ~ VI 층은 패총형성 당시 교란되었던 층위로 혼토패층을 이룬다. 이 층에서는 신석기시대 초기의 용기문토기를 비롯, 자돌·압인문토기, 태선침선문토기, 퇴화침선문토기와 석기, 골각기가 출토되었다.

VII ~ X III 층까지는 용기문토기를 표식으로 하는 신석기시대 초기문화층

55) 하인수, 앞의 보고서, 부산시립박물관, 1996.

으로 층위와 출토유물의 형식적 특징에 따라 1기층(XⅢ~ⅩⅦ층)과 2기층(XⅠ~Ⅶ층)으로 나누어진다.

조사된 유구는 토광묘 1기, 원형집석유구 6기, 노지 2기로 총 9기이다.

토광묘는 Bpit 12층 아래에서 검출되었는데, 토광 내부에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인골이 확인되었다. 부장품은 골각기와 軟玉製 頸飾이 각 1점씩 출토되었다.

보고서에 의하면, 토광묘의 조성연대는 분석결과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으나, 폐기 후, 용기문토기를 표식으로 하는 패층이 퇴적되어 매장주체는 용기문토기인으로 상정되며, 현재 신석기시대 분묘 중 가장 오래된 시기의 것이라 보고하고 있다. 매장 상태는 伸展葬형식이지만, 다리 부분은 X자로 꼬았다.

이러한 신석기시대 매장유적은 최근 고성 문암리를 비롯, 춘천 교동의 동굴묘⁵⁶⁾

산동패총⁵⁷⁾, 연대도패총, 옥지도패총⁵⁸⁾의 예가 있다.

범방에서 확인된 원형집석유구는 주거지의 부속시설물이라기보다 생활지 주위의 야외 시설물로 보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규모는 직경 100cm이하의 소형과 100cm이상의 대형으로 구분된다. 대체로 50~100cm의 크기이다.

이상으로 범방패총의 유적입지와 환경 및 유구의 특징에 대해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출토유물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범방패총 출토유물은 토기류, 골각기류 및 석기류로 나뉜다.

범방패총 보고자는 유물정리과정 중 하층유물들이 상층으로 이동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러한 연유로 층서가 바로 출토유물의 선후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아래의 표는 출토 토기 및 석기의 층위별 수량을 도식화한 것이다.

56) 김원룡, 「春川 校洞 穴居遺蹟과 그 遺物」, 『歷史學報』 20, 1963.

57) 부산수산대학교박물관, 『山登貝塚』, 1989.

58) 국립진주박물관, 『欲知島』, 1989.

〈표 7〉 범방패총 출토 토기 층위별 수량

층위	형식	용기문	무문양	세침 선문	지두문	단도 마연	구순 각목	두립문	자돌 압인문	침선문	단사 선문	이중 구연	저부		수량
													평저	첨저	
13		42	25	8	4	4		1					6	6	96
12		68	53	23	9	2	2	1					14	12	184
11		25	27	6			1						2	4	65
10		3	14	3	1	1	1							1	24
9			12		2		1								15
8		43	28	13	5	2							1	5	97
7		1	7	1	10			1					1		21
7a		2	5												7
6		27	19	2	37	4	16		50	42				11	208
5		5	14	2	22	1	41		31	27				10	153
4			1		1	1	1		3	3					10
3															0
2			6								15	13			34
1			5							4	4	9			22
H	IX	6		1				1							8
	VIII	1	2			1	2		5	4					15
	VII									6					6
	VI	3	1	3		1				13					21
	V									4					4
	IV	3	1			1	1			5					11
	III		3			1									4
	II					1	1			5					7
	I		1												1
수량		229	224	62	91	20	67		89	113	19	22	24	49	

상기의 표로 동일 층위에서도 여러 시기의 유물이 혼재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수량의 차이로 어느 정도 층위간의 주된 시기를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보고자는 층위는 패총의 퇴적 양상과 출토토기의 형식적 특징을 수량화하였으며, 모두 4개의 문화층으로 상정하였다. 먼저 용기문토기를 표식으로 하는 13~7층, 자돌·압인문토기, 태선침선문계토기, 퇴화침선문토기가 혼재하는 6~4층, 전형적인 남해안 태선침선문토기가 주로 확인

되는 H pit VII~I 층, 이중구연 토기 및 단사선문 토기를 표식으로 하는 2층으로 크게 나누었다.⁵⁹⁾

다음으로 석기 및 골각기의 층위별 출토양상을 살펴보겠다.
다양한 기종의 석기가 범방패층에서 출토되었다.

〈표 8〉 범방패층 출토 석기 및 골각기의 층위별 수량

형식 층위	석부	석창	석촉	조침	어망 추	고석	갈판	갈돌	지석	석도	보습	기타 석기	흑요 석편	토제 원판	토우	패천	골각 기	수 량
13	5		1	3	1	1							2			1	3	17
12	5			4		7	3	2	3	2				1			13	40
11		1		4		3											2	10
10						1									1			2
9																		
8	11					3							1		3		3	21
7				2														2
7a																		
6	9		1	5		6	2	3		1	1	6	5				1	40
5	11			1		3	1		2			2	1			1	1	23
4																		
3																		
2	2					2												4
1	6					2	4	5				2	2					21
H	IX																	
	VIII																1	1
	VII																	
	VI	1				2						1						4
	V						1									1		2
	IV	1				1						1	1					4
	III					1			1			1						3
	II																	
	I					1												1
수량	51	1	2	19	1	33	11	10	6	3	1	12	13	1	4	3	24	

가장 많은 수량은 51점의 석부로서, 다양한 층위에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고석과 결합식 조침의 순으로 출토가 되었다.

결합식 조침은 13~5층에서 모두 19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상기 표 6을 통하여 볼 때, 용기문토기 및 무문양토기

59) 하인수, 이해련, 이현주, 「범방패층 I」,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3, p.176.

및 저부 중 평저저부가 집중 출토되는 층위와 유사하다. 범방패총 보고자는 결합식 조침의 경우, 대부분이 용기문 문화층인 13~7층에서 출토되었으며, 6~5층 출토품은 동일 층위 영선동식 토기가 많이 존재함으로 전기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범방패총 출토 조침은 모두 용기문토기문화와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범방패총의 해당시기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로, 상한은 3,520 ~ 3,090 B.C., 하한은 2,570 ~ 2,190 B.C.이다.

·부산 동삼동패총

동삼동패총은 우리나라 신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으로, 신석기문화 연구의 표식적인 유적을 알려져 있다. 동삼동패총은 1929년 동래고등보통학교(현 동래고등학교)교사였던, 及川民次郎씨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横山將三郎에 의해 동년 간단한 시굴조사를 2차례 실시하게 된다.

이후 동삼동 패총은 1963~1964년에 미국 위스콘신 대학의 샘플에 의한 부분적인 발굴과 1969~1971년 국립중앙박물관에 의해 3차례 정식 발굴조사가 실시되었고 최근 발굴보고서가 간행되었다. 이후 동삼동 패총은 유적의 중요성으로 인해 1979년 사적 제 266호로 지정되었다.

1999년에는 현재 위치하는 동삼동패총전시관 건립을 위하여 부산시립 박물관에 의하여 대상부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⁶⁰⁾ 2004년 7월 경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하여 동삼동 진입도로 확장부지에 대한 시굴조사가 실시되어, 같은 해 11월 경성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⁶¹⁾.

이 과정에서 주거유적으로 판단되는 주혈, 구상유구, 적석유구의 생활 유적이 발견되어 패총조사와 함께 상호 보완하여 검토할 수 있게 되었

60) 하인수, 「동삼동패총 정화지역 발굴성과」, 『고고학을 통해본 가야』 제 2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1999.

-----, 「동삼동패총 문화에 대한 예찰」, 『한국신석기연구』 2, 2004.

-----, 「동삼동패총 문화」, 『영남고고학 20년 발자취』, 영남고고학회, 2004.

-----, 『동삼동패총 정화지역 발굴조사보고서』, 부산박물관, 2007.

61) 김재우, 「부산 대중대 진입도로 확장부지내 유적 발굴개요」, 『한국신석기연구』 8, 2004.

다.

2005년에는 동아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진입도로 확장부지의 맞은편 보행자 보도부분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었으며⁶²⁾, 해안매립지역에 대한 수중지표 및 시굴조사도 이루어진 바 있다⁶³⁾.

동삼동패총은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 2동 750-1번지 일대에 해당된다.

유적이 입지한 영도는 해안선이 복잡한 전형적인 리아시스식 해안을 이루는 남해안 동부의 여러 섬 가운데 하나이다. 섬의 중앙에는 해발 395m의 봉래산이 솟아 있으며, 해안지역은 대부분 급경사상의 암석해안을 이루고 있으나, 동남쪽 해안가인 동삼동 일대에는 구릉성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유적이 위치한 영도는 섬이라는 특성으로 식량자원이 풍부하고, 기후가 따뜻하여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였다. 동삼동 주변의 선사시대 유적으로 동삼동, 영선동, 조도 등의 패총유적이 대표적이다.

이상 동삼동패총의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 층위를 살펴보겠다.

동삼동패총의 층위적 해석은 보고자마다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고된 층위가 비교적 단순하고, 층위별 출토유물의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조사에 따른 층위를 따르도록 하겠다.

본 조사에서는 모두 3개의 문화층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최하층인 제 1문화층은 혼토패층으로, 첨저·원저·평저의 무문양토기, 평저용기문토기, 압인·압날문토기, 편평석기, 흑요석제석기, 골제 결합식 조침, 패천 등이 출토되고, 바다고기와 육상동물의 뼈도 발견된다.

제 2문화층은 패곡층으로 태선침선문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단도토기도 출토되며, 마제석기, 흑요석제 석기와 결합식 조침, 골촉, 골제 첨두기가 출토된다.

62) 동아대학교박물관, 『태종대 유원지 진입도로 확장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개요』 현장설명회자료, 2005.

이동주, 「동삼동 진입도로지역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격」, 『남부지방 신석기문화의 제문제』 한국신석기학회 학술발표 자료집, 2006.

63) 동아대학교박물관·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 『동삼 1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역 내 수중문화재 시굴조사 개요』 현장설명회자료집, 2006.

최상층인 제 3문화층은 표토아래에 위치하는 흑갈색 부식토층으로 남해안지역 신석기시대 마지막 단계인 이중구연 토기와 구연부분에 2-3열의 단사선문을 돌린 토기가 중심이며, 단도토기, 마제석부, 흑요석제석기, 결합식조침이 출토된다.

〈표 9〉 동삼동패총 층위별 출토 토기양상

층위 문양	용기문	지두문	무문양	압날 압인문	단선문	침선문	주칠 토기	이중 구연	저부		수량
									평저	원·침저	
1층	20	40	67	77	11	83	11	33	13	19	374
2층	17	134	163	174	2	295	33	172	59	73	1,122
3층	69	164	175	328	9	321	56	34	62	77	1,295
4층	113	76	77	92	12	95	23	15	70	30	603
5층	11	29	27	32	14	39	4		8	15	179
6층	8	23	34	17	6	19			2	8	117
수량	238	466	543	720	54	852	127	254	214	222	

상기의 표 을 살펴보면, 동삼동패총의 교란상태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초기에서 전기시대를 대표하는 용기문 및 무문양토기를 살펴보자. 최하층인 6층에서 상층인 1층까지 분포되고 있으며, 오히려 3층과 4층에서 많은 출토량을 보인다.

또한 만기의 대표적인 유물인 이중구연 토기를 살펴보면, 용기문 및 무문양토기가 다수 확인되는 3,4층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층위적으로 시기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석기 및 골각기류의 출토양상을 살펴보겠다.

다양한 기종의 석기류와 골각기가 출토되었는데, 지석과 석부 순으로 출토되었다.

결합식 조침과 골침은 한 세트로서 모두 13점이 확인되었으며, 모두 5층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유물로서는 구체적인 시기차를 알 수 있는 유물은 없지만, 본고에서 예를 든 유적을 통하여 본다면, 결합식 조침을 통하여 어느 정도 동삼동 패총 층위의 교란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표 10〉 동삼동패총 층위별 출토 석기 및 골각기양상

	석기											골각기				
	결합 식 조침	석부	석창	석촉	갈판 、 갈돌	고석	지석	어망 추	흑요 석제 석기	타제 석기	마연 석기	기타	석부	골침	자들 구	기타
1층	2	13			3		5		7	4		5	5		8	
2층	2	20	1	4	9	4	39		23	11		8	1	2	7	1
3층	2	14	1	2	3	2	19		4		2	10	16	3	21	9
4층	1	8	2		1	1	9	2		7		5	8	1	14	4
5층		1				1	3		1	4			7		5	3
수량	7	56	4	6	16	8	75	2	35	26	2	28	37	6	55	17

앞서 예를 든 유적에서는 결합식 조침의 경우, 평저계의 무문양· 압날, 압인계 토기류와 함께 공반되는 전기의 유물이었다. 하지만, 상기의 표에서는 이중구연 및 침선문가 함께 확인되는, 1·2층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층위의 교란으로 층위가 섞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결합식 조침이 이중구연토기시기까지 출토될 가능성도 있지만, 주거유적에서 보이는 유물의 양상으로 보아서 현재까지의 예는 없다.

신석기시대 유구는 노지 4개소가 확인되었는데,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고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출토유물의 현황으로 석기와 토기의 조합양상은 알 수 없지만, 이 일대의 전기에 해당하는 유적의 잔존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최근 동아대학교 박물관의 동삼동패총 인근지역의 진입도록 확장구간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본고의 주제와 동일한 조합양상을 가진 유물이 확인되었다.

보고서가 미발간되어 확실한 양상은 알 수 없지만, 해수면상승흔적이 확인되는 층위의 발견과 주거유적의 확인 등 동삼동패총과 연계되는 주거공간의 위치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유적의 II층은 바닷층 역석층으로 생활유적은 하층인 VII층에서 확인된다. 즉 해수면 상승이전에 조성된 생활유적이라 할 수 있겠다. 내부출토유물은 토기와 석기로 나뉘며, 토기는 용기문, 압날·압인문, 무문양, 단도토기 등이 확인되며, 저부는 모두 평저이다. 또한 공반 석기는 결합식조침 4점과 소형석촉 1점, 흑요석

제의 침두기편 ·점, 굽개 1점 등이 출토되었다.

동삼동패총과의 연계선상의 주거유적으로 많은 학계의 이목을 받으리라 여겨진다. 동삼동패총의 시기는 9개의 시료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로 상한 $6,400 \pm 50$ B.P ~ 하한 2,740 B.C의 시대에 속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의 유적은 모두 동해안지역에 분포한다. 해수면변동기 시점에 해당되는 유적의 대부분이 동해안 일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신석기시대 해수면변동기 관련 유적 대략 4개소로 좁혀졌다. 이들 유적의 공통점은 먼저, 동해안 해안가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공통적으로 평저계의 무문양, 용기문, 압날·압인문계의 토기와 결합식조침이 서로 공반되어 출토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동해안과 근접한 경남과 부산지역에서 확인되는 유적을 살펴본 결과 뚜렷한 해당시기의 주거유적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유물이 출토되는 양상이다. 즉, 용기문토기와 함께 결합식 조침이 확인됨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III장에서 언급된 유적들과 해수면 변동기의 관계를 살펴해보도록 하자.

IV. 해수면변동과 신석기 초기·전기 유적과의 관계

II장은 후빙기의 기온변화에 따른 해수면변동현상을 한반도를 비롯, 중국과 일본의 예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대체로 6,000 B.C.을 전후한 시기에 해수면은 상승하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는 한반도 내에서는 신석기 초기 ~ 전기의 시기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토기편년을 통해 살펴본 당시의 대표유물은 용기문, 무문양, 압날·압인문, 단도마연 등이 기벽에 시문된 토기가 확인된다.

III장에서는 이들 토기가 출토되는 지역 중 공간적 범위를 동해안지역으로 한정하고, 시간적 범위는 해진기가 확인되는 6,000 B.C. 의 신석기 초기 ~ 전기시기로 한 유적과 출토유물의 제 양상을 소개하였다.

이번 장에서는 III장에서 소개한 유적과 출토유물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해수면 변동기 신석기인들의 생활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앞서 동중해안과 동남해안의 6개소의 유적을 소개하였는데, 이 중 주거유적은 고성문암리와 양양오산리의 2개소이고, 나머지 유적은 남해안 지역에 집중되는 패총유적과 문화층수습유물층이었다. 이들 유적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형적으로, 바다에 인접하게 위치하며, 대체로 해안에 발달한 사구나 바다와 가까운 낮은 구릉의 사면부에 입지하고 있다.

신석기 초기 ~ 전기시기의 동해안지역 유적의 입지적 공통성은 당시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석기로 추론해볼 수 있다. 4개소의 채 유적에서는 석부, 석촉, 석창 등의 수렵과 채집 뿐 만 아니라, 어업에도 상당히 의존하였으리라 짐작되는 조침, 어망추 등의 유물도 확인된다. 이에 수렵과 채집과 어업이 용이한 바다에 인접한 해안단구의 지형에 주로 거주하였으리라 여겨진다.

둘째, 주거유적은 해안사구에 형성된 중동부지역의 문암리와 오산리 유적 2개소이며, 나머지는 모두 패총과 관련된 유적으로 주거유적의 수량은 적은 편이다.

즉 신석기시대 이른시기의 유적은 대체로 동해안을 따라 확인되지만, 주거유적의 수량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동해안의 기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동해안지역은 동해의 깊은 수심과 난류인

동안해류의 영향 및 태백산맥이 한랭 건조한 북서계절풍을 막아주어 겨울에는 편현상을 일으켜 온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북동기류에 의해 사계절 날씨가 고르지 못한 현상을 나타낸다. 동해해역의 바람은 서풍계의 바람으로, 때에 따라서 최대풍속 15m/s 이상의 강풍 또는 순간 풍속 20m/s 이상의 돌풍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서풍계의 강한 바람은 골바람이라고 불리며, 골바람이 불 때는 동해안 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 이러한 기후적인 이유로 해안선에 인접한 지역은 자연적으로 주거유적의 발견 예가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패총유적은 다수 확인되는데, 공간적으로는 주로 남해안 지역에 집중된다. 이는 한반도의 지형적 이점이 가지는 특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의 드나듦이 심하며, 해수면이 얇고, 수심의 온도는 높은 편이다. 환경적 유리함으로 남해안지역은 일찍부터 어로활동이 활발하였을 것이고, 패총이 다수 확인되는 이유는 이러한 연유로 여겨진다.

셋째, 이들 유적의 해당시기는 모두 6,000~4,500 B.C.로 이시기는 해수면변동시기와 일치된다.

앞 서 II장에서 중국, 일본, 한국의 자연분석의 사례와 고고학의 층위적 확인의 예를 통하여, 해수면 상승시기가 대략 6,000B.C.를 시작으로 4,500B.P.에는 최극상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아래는 III장에서 소개된 유적의 시기를 분류한 것이다.

단, 현재 고성문암리 유적과 창녕비봉리 유적의 경우, 방사성탄소연대 측정치가 확인되지 않아 출토토기를 통한 대략적인 시기를 추정하였음을 상기해 둔다.

·고성 문암리유적- 6,000 ~ 4,500 B.C.

·양양 오산리유적- $12,000 \pm 50 \sim 4,360 \pm 50$ B.P.

·울산 우봉리유적- 7,500B.C.이후

·울산 세죽유적- $5,350 \pm 100 \sim 5,250 \pm 100$ B.P.

·부산 범방패총- 3,520~2,190 B.C.

·부산 동삼동패총- $6,400 \pm 50$ B.P. ~ 2,740 B.C.

·창녕 비봉리유적-신석기 초기~중기 추정

신석기 초기~전기의 유적은 현재 서해안지역보다 동해안에서 다량 확

인되는 추세이고, 대체로 바닷가의 인근지역에 분포한다.

넷째, 유적의 출토유물 중 토기는 모두 평저계 무문양토기와 용기문 및 압날·압인문이며, 석기로는 결합식 조침이 공통적이다.

물론 패총유적의 경우, 층위의 복잡화와 뒤섞임 현상으로 장시간에 걸친 토기도 함께 공반되는 유적도 있었다. 가령 동삼동 패총의 경우, 신석기시대 만기에 해당되는 이중구연 토기와 조기의 용기문토기가 함께 공반되는 것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나 조기~전기의 토기가 출토되는 것은 주지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 동남해안 일대에 이른 시기의 주거유적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또한 최근 이러한 증거는 발굴과정을 통해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는 추세이다.⁶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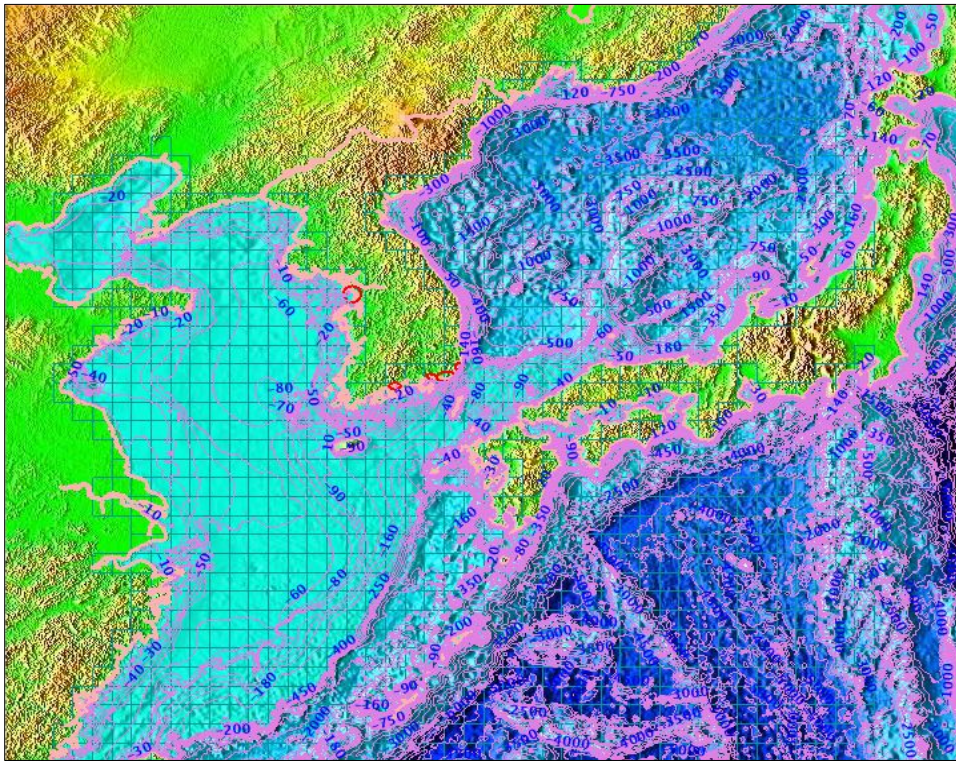
이상으로 해수면 변동기의 시기와 관련된 동해안지역 신석기 조기~전기의 유적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6,000 B.C.를 전후로 하여 해수면변동기의 시점에 우리나라는 신석기 조기~전기에 해당되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해당되는 표식적인 유물은 용기문토기가 출토되는 지역이다. 용기문토기는 동해안의 해안선 루트를 따라 집중적으로 확인되는데, 부산을 포함한 동남해안일대는 패총유적에서 집중 출토되며, 동중해안은 주거유적 내에서 확인되는 두 가지 양상이 확인된다.

이른 시기 유적이 동해안에서만 확인되는 지역적 편중현상은 동고서저(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의 형태를 가진 국토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즉, 서해안지역의 부재는 서쪽이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형상의 변화와 해진활동 등에 의해 해당유적들이 서해 속에 잠겼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가정된다.

64) 주류성출판사, 「양양 오산리 II유적 도로확장구역 발굴성과」, 『季刊 한국의 고고학』, 2007, p.60~67.

동아대학교박물관, 앞의보고서, 2005.



도면 5. 한반도 연안의 수심도(국립과학수사원, 2007)

위의 〈도면 5〉는 한반도 연안의 수심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수심은 대체로 서해안은 $-10 \sim -80\text{m}$ 이고, 동해안은 $-50 \sim -1,000\text{m}$ 으로 동해안에 비해 서해안이 확연히 얕은 깊이이다. 이러한 데이터는 해수면 변동기 이전 서해안지역이 육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된다. 또한 앞서 II장에서 언급한 일본의 수심 150m지점에서 확인된 해저림의 발견은 해수면의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단연 수심이 낮은 서해안지역이 육지였을 가능성을 확고히 해 주는 자료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유물간의 조합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한 6개소의 유적은 모두 이른 시기의 신석기시대 유적들이다.

이들은 모두 용기문, 압날·압인문, 평저계무문양토기와 함께 석기로는 수렵구인 석부, 석촉, 석창과 어로도구의 결합식 조침이 공반되어 출토된다.

수렵구의 출토는 원거리와 근거리의 사냥활동의 행위가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수렵활동은 단백질 섭취를 위한 食生活 뿐만 아니라 동물의 뼈, 이빨, 가죽은 衣와 住를 위한 도구를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당시 신석기인들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⁶⁵⁾

어로구는 한반도의 입지적 환경을 볼 때, 주요 생업기반으로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신석기시대 어로활동의 영역을 크게 작살업, 낚시업, 어망업, 패류채취업으로 구분되며⁶⁶⁾, 어로활동에 대한 대표적인 도구로는 석추, 작살, 결합식조침, 어망추, 석창 등이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유적에서는 공통적으로 결합식 조침의 어로구가 확인된다. 조침이란, 현대의 낚시도구와 동일한 용도로, 분포지역이 동해안의 해안가 일대에 이르기 유적이 확인된다는 것은 당시 자연환경과 관련 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당시 해수면은 기온의 변화로 상승하게 되고, 동해안의 동중해안과 동남해안 또한 수심이 깊어진다. 자연적으로 어류가 형성되었으며, 동해안은 쓰시마 해류로 인해 연중 지속적으로 풍부한 어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또한 해안구조가 단조롭지만 외양으로 멀리 나가지 않아도 대형어류의 포획이 가능하며, 동남해안 역시 다도해성 지형으로 낚시 대상어종이 풍부한 어로활동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⁶⁷⁾

그렇다면, 신석기 초기~전기의 이른 시기에 출토되는 결합식 조침에 대해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장에서는 신석기인들의 생업활동 중 결합식 조침과 관련된 어로활동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65) 국립대구박물관, 『머나먼 진화의 여정 사람과 돌』 특별전 도록, 2005, p.354

66) 국립대구박물관, 앞의 도록, 2005, p.354:29~32.

67) 김충배, 「신석기시대 낚시바늘연구(Ⅱ)」, 『한국신석기연구』 6, 2003. p.47.

V. 동해안지역 신석기 초기·전기시대의 생업활동

신석기시대 초기 ~ 전기의 중요한 생업활동은 수렵, 채집, 어류자원획득이 기본적인데, 수렵행위는 석창, 석부, 석촉의 공격성 도구의 제작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으며, 채집은 석도, 갈돌, 갈판 등의 유물과 도토리, 솔방울, 가래 등 식물유체의 확인으로 행위를 짐작할 수 있다. 어류자원은 포획은 석창, 조침, 어망추 등의 유물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즉 석창으로 직접 찢러 어류를 획득하거나 조침을 이용한 낚시행위로 원거리나 근거리의 어류를 포획할 수도 있다. 또한 어망추로 그물을 엮어 단시간 많은 양의 어류를 포획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앞서, 살펴본 신석기시대 이른시기의 유적들은 중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확인되는 결합식조침을 살펴보면, 해수면 변동기 당시의 생활상과 경제성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결합식조침의 연구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합식조침에 대한 연구는 김건수, 김충배에 의해 언급된 적이 있다.

김건수는 우리나라 선사, 고대의 어로문화의 전반을 논하면서 개별 어로구와 연계한 종합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특히 신석기시대에는 결합식조침을 이용하여 외해성 어업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청동기시대에는 도작문화의 전개와 함께 외해성어업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주장을 하였다⁶⁸⁾.

김충배는 신석기시대의 결합식조침의 전체형태, 크기, 재질로서 12가지의 형식분류를 시도하였다. 또한 유물이 출토되는 유적의 분류, 편년자료를 바탕으로 4기의 시기로 나누고 분기별 분포상의 특징을 논하였다. 결합식조침의 출토양상의 편중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이는 어류자원의 형성과 생계를 위한 주된 활동의 영향이라는 설을 제시하였다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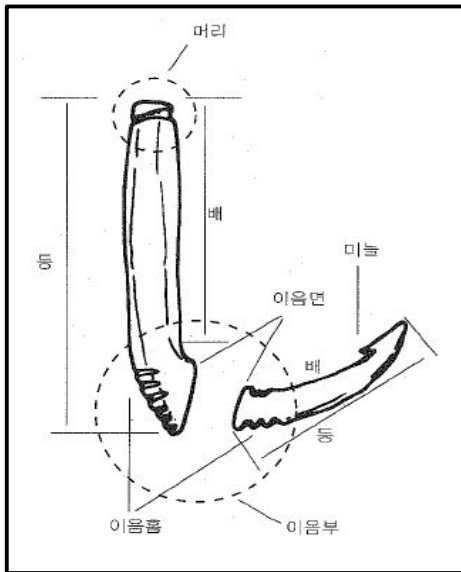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결합식조침의 정의와 공반토기, 해수면변동 등에 관한사항을 살펴보겠다.

결합식 조침이란, 이음낚시, 묶음식 낚시, 결합식 낚시, 조합식 조침, 결합낚시 등

으로 불리는 축부와 침부로 이루어진 낚시도구이다. 신석기시대에는 결합

68) 김건수, 『한국 원시·고대의 어로문화』 학연문화사, 1999.

69) 김충배, 「신석기시대 낚시바늘 연구(I, II)」, 『한국신석기연구』 제5,6호, 2003.



도면 6. 결합식조침 세부명칭(김충배 2003)

은 낚시 끝부분 즉 바늘부분은 뼈로 만들고, 몸통 즉 축부는 나무를 깎거나, 돌을 갈아서 사용하고 있어, 신석기인들의 가공행위를 짐작할 수 있다.

결합식조침과 공반되는 토기는 주로 평저계 무문양과 융기문, 압날·압인문계 토기이다. 이들은 모두 초기~전기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결합식조침도 자연 이 시기로 상정되었다.

고성 문암리 유적 <도면 9-1, 9-2>의 층위 별 출토유물에서 침선문토기를 표식으로 하는 III 층부터는 결합식조침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어망추가 소량 출토된다. 또한 그 하층부터는 결합식조침이 조·전기 토기와 공반하여 나타난다.

양양 오산리 유적 II층에서 확인된 주거유적 B 區 2호 주거지는 오산리에서 유일한 서해안식 빗

살문토기가 출토된 유구이다. 이 유적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을 잇는 연결고리를 찾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공반석기를 살펴보면, 어망추만 확인된다. 오산리 유적 B 區 2호 주거지 하층 주거지는 모두 무문양과 융기문, 압날·압인문계토기를 표식으로 하며, 결합식조침이 출토된다.

식 조침과 단식 조침, 역T자형조침으로 나뉘며, 단식조침의 경우 골각제는 존재하지만 돌로 만든 단식조침바늘은 현재까지는 출토되지 않는다⁷⁰⁾.

결합식 조침은 바늘의 몸구실을 하는 축부와 고기가 무는 바늘부분인 침부로 나뉜다. 침부는 대체로 동물의 뼈· 고라니 · 멧돼지 등의 견치, 조가비로 만든 예가 동삼동, 연대도, 노래섬 유적에서 확인된다. 전체적인 형태는 J, L, C 자형이 있다⁷¹⁾.

이러한 사실은 민속학적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메리카대륙원주민들

70) 국립대구박물관, 앞의 도록, 2005, p.166.

71) 김건수, 앞의 책, 1999.

즉, 어로획득방법이 조·전기 시기의 결합식조침을 사용한 낚시법에서 중기의 어망추 사용이 증가하면서 어망법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적 현상으로는 해당시기(조기~전기) 해수면의 변동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본고 II장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며, 해수면상승의 最 極上期는 4,500 B.C.를 전후한다.

신석기 조·전기시기에 생활하던 사람들은 해수면의 변동기를 맞이하고 차츰 상승하는 해수면으로 풍부한 어장을 갖추게 된다. 특히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동해안의 경우 다양한 어종을 포획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었을 것이다. 당시 생계수단이 수렵과 어로를 주 행위로 하였음을 감안한다면, 외양성어업을 행하는 낚시업은 다양한 어류의 포획에 알맞은 어업법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결합식조침을 표지로 하는 낚시법은 주로 신석기 초기~전기 동중해안과 동남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중기가 되면 서해안 일부지역까지 확산되고 후기가 되면 감소되는 양상이 일반적이다.⁷²⁾ 이러한 지역적·시기적 편중현상은 우리나라 지형과 관계한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동해안지역은 서·남해안보다 낚시법인 이용될만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는 동해안은 해안선이 다른 해안보다 단순하며, 수심이 깊어 외양성어업이 가능하고, 또한 한·난류의 교차로 다양한 어종의 서식 등의 요인으로 인함이다. 반면 서·남해안지역은 리아스식 해안과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하며, 조석간만의 차이가 커서 낚시법보다는 채취법이나 어망법이 더 용이한 환경이기 때문에 동해안지역이 일찍부터 낚시법이 발달하였으리라 여겨진다.

이상 해수면 변동시기를 전후한 신석기 조·전기시대의 유적의 특성과 출토유물을 살펴보았다.

결국 이 시기는 어로법으로 결합식조침을 사용한 낚시가 일관된 양상이다. 그렇다면, 과연 낚시를 통해서 취할 수 있는 이득과 신석기 중기 이후 변화되는 어로법으로 생계경제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늘날의 낚시도구는 소재의 개발로 다양화되어 있으며, 어종에 따라

72) 동아대학교박물관, 앞의 보고서, 2005.

다종다양한 크기와 소재의 낚시바늘이 선보이고 있다. 대체로 예리함, 내구성 등의 기능이 중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낚시의 행위에 있어서 시기를 망라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석기시대 결합식조침은 과연 어떤 형식으로 다양화 되었을까?

추정컨대, 어류의 크기나 장소에 따른 낚시도구의 다양화가 예상된다.

아래의 〈표 11〉은 III장에서 언급된 유적에서 출토된 결합식조침을 세부항목별로 작성한 것으로, 완형출토품을 기준으로 한다. 단, 울산우봉리와 창녕비봉리 유적은 완형의 미출토와 보고서의 미발간의 이유 등 상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본 자료에서는 제외하였다.

재질, 크기, 추정연대, 길이, 너비를 분류기준으로 하였다.

재질은 돌과 뼈로 나누어지며, 대체로 돌로 만든 결합식조침이 완형으로 잘 보존된 상태이다. 크기별로는 대, 중, 소로 나누었으며, 기준은 10~20cm는 大, 5~10cm는 中, 5cm이하는 小로 하였으며, 20cm이상은 特大로 명명하였다.

추정연대는 주거유적 내 출토품의 경우 공반유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외는 출토층위로 가늠하였다. 길이와 너비는 결합식조침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한 것으로, 너비의 경우 가장 두꺼운 부분을 계측하였다.

고성 문암리유적에서 가장 많은 출토량이 확인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석기저장공으로 추정되는 '02년-8호 수혈의 단일 유구 내에서 석부를 포함한 39점의 결합식조침이 완형으로 다량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대체로 대형의 것으로 재질은 돌이다.

양양 오산리유적은 많은 양이 출토되었으나, 대부분 파손품으로 완형은 8점에 불과하다. 돌로 제작되었으며, 시대는 전기로 추정되고, 크기는 대, 중이 고루 분포한다.

울산세죽리유적은 7점의 완형품이 확인되며, 돌로 제작되었다. 시기는 조기, 크기는 대체로 中이다. 부산동삼동은 층위의 불안정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4점의 완형품이 모두 돌로 제작되었으며, 크기는 대체로 中이다. 마지막으로 부산범방유적은 돌로 제작된 완형품 5점이 출토되었으며, 시기는 조기이다. 크기는 대체로 中이다.

〈표 11〉 결합식 조침의 크기별 분류(완형출토품을 중심으로)

유적명	층위	재질	연대	길이	크기	너비	유적명	층위	재질	연대	길이	크기	너비
문암리	VII-2	돌	전기	5.35	소	0.9	문암리	VII-2	돌	전기	15.15	대	1.65
문암리	VII-2	돌	전기	10.35	대	1.15	문암리	VII-2	돌	전기	16.4	대	1.85
문암리	VII-2	돌	전기	11.3	대	1.2	문암리	VII-2	돌	전기	18	대	1.35
문암리	VII-2	돌	전기	11.55	대	1.2	문암리	VII-2	돌	전기	20.35	특대	2.15
문암리	VII-2	·돌	·전기	11.5	·대	1.2	문암리	VII-2	돌	전기	18.2	대	1.6
문암리	VII-2	·돌	·전기	11.4	·대	1.2	오산리	V-5	돌	전기	11.3	대	0.9
문암리	VII-2	돌·	·전기	11.45	·대	1.2	오산리	Ⅲ	돌	전기	10.6	대	1.1
문암리	VII-2	돌	·전기	11.75	·대	1.2	오산리	V-4	돌	전기	7.0	중	0.8
문암리	VII-2	·돌	·전기	11.5	·대	1.3	오산리	V-3	돌	조기	8.5	중	1.2
문암리	VII-2	·돌	·전기	11.6	대	1.2	오산리	V-3	돌	조기	6.0	중	0.8
문암리	VII-2	돌	전기	11.8	대	1.15	오산리	V-1	돌	조기	8.2	중	0.9
문암리	VII-2	돌	전기	13.2	대	1.3	오산리	V-1	돌	조기	10.8	대	1.1
문암리	VII-2	돌	전기	12.75	대	1.2	오산리	Ⅲ	돌	전기	4.2	소	0.6
문암리	VII-2	돌	전기	13.2	대	1.3	세죽리	Ⅲ-2	돌	조기	7.7	중	1.0
문암리	VII-2	돌	전기	12.2	대	1.3	세죽리	Ⅲ-2	돌	조기	8.3	중	0.9
문암리	VII-2	돌	전기	12.85	대	1.35	세죽리	Ⅲ-2	돌	조기	6.8	중	0.8
문암리	VII-2	돌	전기	13.25	대	1.35	세죽리	Ⅲ-1	돌	조기	7.0	중	0.8
문암리	VII-2	돌	전기	13.6	대	1.35	세죽리	Ⅲ-3a	돌	조기	8.5	중	1.1
문암리	VII-2	돌	전기	13.35	대	1.2	세죽리	Ⅲ-2a	돌	조기	7.8	중	1.0
문암리	VII-2	돌	전기	13.4	대	1.3	세죽리	Ⅱ-1c	돌	조기	7.1	중	0.8
문암리	VII-2	돌	전기	12.45	대	1.25	동삼동		돌		13.4	대	3.7
문암리	VII-2	돌	전기	11.32	대	1.2	동삼동	4	돌	후기	9.9	중	1.0
문암리	VII-2	돌	전기	11.75	대	1.4	동삼동	4	돌	후기	9.7	중	0.7
문암리	VII-2	돌	전기	12	대	1.7	동삼동	교란층	돌	?	8.5	중	0.9
문암리	VII-2	돌	전기	12.85	대	2.0	범방	13	돌	조기	7.1	중	1.1
문암리	VII-2	돌	전기	12.85	대	1.9	범방	13	돌	조기	7.0	중	1.1
문암리	VII-2	돌	전기	13.15	대	1.7	범방	7	돌	조기	7.1	중	1
문암리	VII-2	돌	전기	15	대	1.75	범방	5	돌	조기	5.5	중	1.0
문암리	VII-2	돌	전기	14.85	대	1.75	범방	6	돌	조기	11.3	대	1.3
문암리	VII-2	돌	전기	14.75	대	2.0	대경도	지표	돌	?	6.8	중	1.0
문암리	VII-2	돌	전기	16.25	대	2.0	노래섬	?	이빨	전기	5.4	중	0.5
문암리	VII-2	돌	전기	15.8	대	1.55							

동중해안에 속하는 문암리와 오산리 유적은 동남해안의 세죽리와 범방

유적에 비해 길이와 너비가 길고 두꺼운 편이다. 또한 <표 10>의 대경도와 노래섬 출토품을 보면, 동중해안 출토품에 비해 크기가 작은 편이다. 반면 동삼동 유적은 타 동남해안에 비해 크기가 큰 편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동삼동 유적 출토품은 형태가 다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타 유적은 J자형으로 침부와 접합되는 면이 살짝 굽어져 있는데, 동삼동유적은 I자형으로 곧게 쪽 뻗었으며 두께는 납작하다.

동중해안의 고성 문암리와 양양 오산리유적은 대체로 크기가 대형에 속하는데 반해 동남해안의 울산 세죽, 부산 범방, 대경도, 노래섬 출토품의 것은 중형에 속한다. 또한 동삼동의 경우, 전혀 다른 형태의 낚시도구도 존재한다. 이러한 크기 및 기종별 차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석기시대 낚시로 인한 포획에서도 현대와 같은 도구의 다양화가 있었다는 증거로 여길 수 있다.

이상으로, <표 11>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유적별 출토 결합식조침의 길이 대 너비의 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길이와 너비는 결합식조침의 크기를 대별하는 것으로 크기의 차이는 포획어류에 비례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표 12> 출토유적별 결합식조침의 길이와 너비

	고성문암리	양양오산리	울산세죽리	부산범방	부산동삼동
전체길이	13.2	8.3	7.6	7.6	11
전체너비	1.4	0.9	0.9	1.1	1.8
길이와 너비의 비율	9.2:1	9:1	8.3:1	6.9:1	6.1:1

<표 12>의 데이터를 참고하면, 동중해안에 위치한 고성과 양양 출토 결합식조침이 동남해안의 것보다 크기가 큼을 알 수 있다. 크기의 차이는 어종의 차이, 파손의 우려, 내구성 등의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으로, 결합식 조침에 대한 출토지 별 특징을 간략히 알아보았다. 대체적으로 사용기능에 따라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그렇다면, 신석기시대 당시 낚시행위는 과연 어떠한 장점이 있었던 것일까?

낚시는 줄과 바늘을 근간으로 하는 어로법이다. 일인당 한 개의 낚싯대만 있으면, 누구나 어류의 포획이 가능하며, 언제든지 개인으로 자원획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소수의 인원으로 간소한 도구를 사용하여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면 7. 낚시법 모식도(국립과학수사원, 2007)

하지만 낚시도구의 제작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현재 고고학으로 남아있는 낚시도구는 석제와 골각제로 만들어져 있다. 김충배⁷³⁾의 안에 의하면, 4단계를 거치는 제작방법을 제시하였는데 1단계는 재료의 획득으로 멧돼지와 고라니의 송곳니의 뼈 혹은 편암, 편마암, 점판암, 혼펠스 등 입자가 곱고 갈아 만들기 쉬운 석재를 얻어야 한다. 2단계로 모은 재료를 성형하는 것인데, 축부는 원석을 擦切具로 문질러 길게 끊어내는 擦切技法이나 깨트려 일정한 크기로 깨낸 다음 다듬는 두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3단계의 다듬는 과정을 거쳐 4단계 완성 단계에서는 축부와 침부를 끈이나 실로 연결하여 사용한다.

분명, 현재 남아 있는 고고학적 자료의 선행은 쉽게 가공할 수 있는

73) 김충배, 앞의 논문, 2003, p.72~73.

것들로서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낚시바늘의 부러짐, 재사용 여부 등의 이유로 착오를 겪으면서, 석제나 골각기류로 재료를 변경하였을 것이고, 완성된 자료가 남아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고를 하면서 만들어진 낚시도구로는 과연 어떠한 장소에서 하며, 어떠한 어류를 포획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상기 언급한 6개소 유적의 지형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경적 요소와 어류의 종류, 인간의 행위요소는 서로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형의 분류는 암초지형, 사빈해안지형, 汽水域으로 나눈 김충배의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암초지형은 해변가 혹은 섬에 암초의 드나들이 많은 곳이며, 우리나라 동남해안의 해안선이 이에 해당된다. 낚시는 지형적 특성으로 던질낚시류를 주로 하였으며, 암초성 저서층에 서식하는 돍이나 가오리 등의 포획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울산우봉리, 부산동삼동패총이 여기에 속한다.

사빈해안지형은 해안선의 드나들이 단조롭고, 모래층의 퇴적으로 인해 형성된 지

형으로 조간의 차가 적은 동중해안지역에 해당한다. 동중해안지역은 고성문암리, 양양오산리, 부산범방유적이 이에 속한다. 어류의 포획도 동중해안의 수심이 깊어, 대형어류의 포획이나, 주변 하천의 영향으로 시기에 따라 회유하는 연어의 포획도 가능하다.

기수역은 합수머리라고도 하는데, 강이 흘러 바다와 합쳐지는 지역을 말하며, 울산세죽리, 창녕비봉리유적이 속한다. 이들 유적에서는 출토 어류유체를 살펴볼수 있는데, 대체로 해저의 가오리, 암초지역의 돍, 외양성의 상어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비봉리유적에서는 상어작살이 확인되어, 주변 포획 뿐만 아니라, 원거리로 이동하여 포획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동중해안은 쿠로시오 해류를 지류로 하여 동남해안지역을 따라 북상하는 난류인 쓰시마난류와 북동부지역의 해안을 따라 남하하는 북한한류가 교차하는 지역이고, 수심이 깊어 풍부한 어장을 형성한다. 따라서 낚시를 멀리 투척하여 고기를 낚는 遠投낚시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배낚시의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대어를 잡고자 할때는 공

동의 노동력이 필요하다. 배에 노를 저을수 있는 인원을 몇 명 충족한 후, 뱃머리에 줄을 묶고, 풀어서 바다의 중층까지 내려보내어, 신호가 왔을때 여러 사람이 노를 저어 해면에서 대어를 낚아내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이다 <도면 8> .

반면, 남해안은 육지의 침강이나 해수면의 상승으로 형성된 리아스식 해안으로, 풍부한 식물성플랑크톤 및 다양한 미생물의 서식과 해수면이 비교적 잔잔하기 때문에 다양한 어종이 형성되어 있다. 이 같은 경우는 소형의 것을 사용하며, 던질낚시방법 보다는 고정낚시방법을 채택하여 깊지 않게 낚시바늘을 드리우고, 신호가 왔을 때 쥘싸게 건져올려서 포획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자료 중 서포항유적에서는 단일조침의 예가 확인된다. 이것들과 함께 홀리개라는 생소한 도구를 보고하였다. 홀리개는 뼈로 만들었으며, 한쪽 혹은 두쪽 옆 모서리를 아삭하게 어겨서 마치 물고기의 윤곽을 비유한 것처럼 제작하였다.

어류의 포획할 경우, 이 홀치개로 고기를 유인한 후, 낚시바늘에 걸리면 잡는 방법인 것이다.

이와 같은 예에서 보더라도, 신석기 조·전기 결합식 조침을 사용하던 신석기인들은 지형에 맞는 다양한 낚시법으로서, 포획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13〉 동해안 신석기조·전기시대 유적 어류자원

유적명	출토어종	현재어종자원
고성 문암리유적	.	방어, 쾡치, 까나리, 명태,
양양 오산리유적	.	복어, 송어, 가오리, 가자미, 문어, 오징어, 전어 등
울산 세죽리유적	가오리, 참돔, 감성돔, 대구, 고등어, 상어	가자미, 청어, 방어, 학쾡치, 쾡치, 볼락, 복어, 전어, 송어, 오징어, 문어 등
울산 우봉리유적	.	
부산 동삼동패총	넙치, 참돔, 흑돔, 참대구, 대구, 다랑어, 상어, 송어	볼락, 도미, 농어, 삼치, 갈치, 망둥어, 보구치, 방어, 돔류, 쥐치, 멸치, 오징어 등
부산 범방유적	.	
창녕 비봉리유적	가오리, 상어	

비록 출토유물수량의 소량화, 유적의 제한성, 재질의 한계성으로 일부의 결합식조침이 남은 상태이지만 이는 차후 더 많은 자료가 확인될 것으로 여겨지며, 연구성과도 축적되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현재 과연 어떠한 어류가 포획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표 13〉은 III장의 6개소 유적에서 확인된 출토어종과 현재 오늘날 어류자원을 나타낸 표이다. 고성과 양양의 주거유적은 골각류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포획어류를 짐작할 수 없으나, 현재 외양성 어류(붕장어, 꽁치, 방어, 명태 등)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외양어업을 주로 행하는 어업활동을 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울산의 세죽유적은 암초성의 감성돔과 참돔 및 해저에 서식하는 가오리, 연근해의 상어, 고등어, 대구 등이 확인되며, 부산 동삼동패총의 경우 해저에 서식하는 넙치, 암초가 근거지인 참돔, 참대구, 감성돔, 연근해의 대구, 다랑어 등 경남일대는 다양한 곳에서 서식하는 어종의 포획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출토 어종은 대체로 서해, 남해, 동중국해에서 서식하며, 서식온도는 따뜻한 바다($6 \sim 25^{\circ}\text{C}$), 서식수층은 $30 \sim 450\text{m}$ 의 수심에서 서식하는 어종이다.

〈표 13〉은 최근 20년간 한반도 동해안의 연근해지역에서 포획된 어류의 수량을 데이터화한 것이다. 원양어업의 참치과(참치, 다랑어 등), 연근해업의 오징어, 꽁치, 갈치, 고등어류의 순으로 포획되었다. 특이한 점은 최근 환경의 변화와 기온의 상승으로 인해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열대·아열대에서 주로 서식하는 참치과의 다랑어류가 한반도 연안에서 출몰하는 점이 주목되며, 과거 어종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수가 있다.

다음으로 어로획득방법의 변화시기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결합식 조침을 사용하여 낚시로 어로생활을 영위하던 신석기인들은 전기를 지나 중기에 이르게 되면, 서서히 어로방법을 변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시기는 고성 문암리나 양양 오산리유적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바로 어망추를 이용한 그물법이다. 낚시가 장시간 소량의 어류를 포획하는 단점이 있다면, 그물법은 공동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단시간 많은 양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낚시법에서 어망법으로 어로포획방법이 변화하게 된 것일까?

첫 번째로 자원고갈의 문제일 것이다. 원양어업에는 무리가 있던 신석기시대는 일정 반경 내에서 낚시로서 생업을 유지하기에는 어류개체수가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노동력 및 시간적 절감이다.

기존 낚시도구는 재료의 채취, 마연, 성형 등의 과정을 거침으로 제작기간의 장시간화와 시간적 낭비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반면 어망추의 경우, 자갈을 이용하여 긴 쪽의 양면을 쪼아 약한 홈을 만들면 제작은 끝난 것이다. 재료 취득의 용이성과 성형의 간단함이 결합식조침의 경우보다는 더 간단하다.

셋째로, 도구의 재사용 문제이다. 대형어류는 포획할 당시 거친 반향을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합식조침이 부서지는 경우도 종종 생겼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도구에 비해 부서지는 편을 다 수거할 수도 없으며, 일정한 길이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제작을 하여야하는 불편함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넷째로, 포획량과 포획장소의 문제이다.

낚시는 도구의 특징상 많은 양의 어류를 포획할 수는 없으며, 장소도 제한적이다.

다섯째, 어로생활 이외의 또 다른 생계방식이 채택되었을 가능성이다.

낚시는 일정한 포획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다수가 이 업에 종사를 하여야 하며, 도구의 제작자도 항상 대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어망추는 단시간 많은 양의 어류를 포획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어류포획 이상의 다른 생계방식이 생겼을 것이다. 예로 농경의 발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상황으로 결합식 조침에 의존한 어로생활에서 농경을 일축으로 하여, 어로생활은 어망추를 이용한 그물낚기의 방법으로 생활방식을 변경하였으리라 여겨진다.

그러한 예로 신석기중기로 접어들면서 전기에서는 발견되지 않던 한반도 내륙지방에서 신석기유적이 확인된다. 이와 함께 토기로는 구연부에서 몇 cm의 거리를 띄우고 시문되는 봉계리식토기, 충청도내륙지방의 금

강식토기을 표식으로 하는 새로운 형식이 등장하며, 반달돌칼, 갈돌, 갈판, 보습, 팽이 등의 농경에 이용되는 석기가 자주 출몰하여, 어로중심의 생활에서 땅을 일구어 얻은 수확물로서 생계를 꾸리게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즉, 이러한 생활환경의 변화와 주거공간의 이동, 식량획득의 변화 등에서 어로도구도 변화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14〉 우리나라 동해안의 연도별 주요 포획 어종수량

어종명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총계
날개디랑어	1,460	1,272	1,303	749	902	1,813	2,900	3,274	3,787	14,936	17,891	8,055	6,040	3,685	2,779	1,385	202	75	96	48	588	1,171	3,177	954	569	1,557	1,791	1,252	742	84,453
황새치	242	140	29	43	23	38	98	94	51	54	23	81	59	51	36	105	78	82	15	13	55	198	401	439	578	894	954	627	642	6,143
참치과	8,560	8,944	2,627	4,036	2,793	3,941	5,567	6,102	6,458	9,612	15,099	17,361	11,720	8,703	16,966	17,567	15,985	14,633	19,557	18,599	15,486	17,597	27,275	21,236	22,704	26,868	27,438	11,011	12,695	397,140
청새치	328	355	92	180	126	160	225	128	250	172	180	207	500	62	73	165	110	84	5	1	6	223	567	256	207	170	175	185	206	5,398
흑청새치											60	78	43	28	61	4	615	1,375	483	395	300	182	403	793	735	1,153	997	1,115	863	9,683
참서대																								105	95					200
고등어																								4					204	208
꽂치																	1,345							754	1,060	423	234			3,816
가다랭이	267	873	791	59	840	1,794	61	45	154	40	3	225	20	214	8	5	1,340	4			1,446	1,885	2,705		2	138	2,225	5	82	15,231
Gadiformes	2,700	747											291											26						3,764
줄무늬 청새치	132	174	32	250	36	7	41	15	49	35	19	32	39	28	2	24	59	651	590	374	400	1,087	739	571	600	343	266	188	59	6,842
황다랑어	5,564	6,853	2,984	4,911	4,626	3,544	3,826	7,333	5,669	8,195	9,600	10,814	10,105	6,666	10,271	8,923	10,873	8,250	8,709	10,436	11,327	13,455	14,091	8,812	13,640	15,208	13,702	6,130	6,316	250,833
청새치과	4,414	1,098	510	205	255	2,369	4,088	3,060	2,487	3,288	2,132	63	53		578	490	430	651	561	327	77	65	30	573	711	744	56	19	1	29,335
솜뱅이																							4							4
오징어								486	2,839	2,161	6,634	11,251	18,394	15,645	5,312	4,059		693	461	205	203		316	1,429		377				70,465
동갈민어과															162	2,076	2,090	1,935	809	793	1,320	1,301	1,404	7,325	3,030	441	174	66	284	23,210
낙지																								8	12		6			26
대서양 청다랑어	13							7	5						18	72	81	43												239
참치과 어류	132	49	33	18	14	9	66	162	569	5,885	5,546	3,702	3,065	1,599	2,747	1,811	2,368	1,854	1,573	2,769	2,740	2,972	4,159	2,574	2,484	3,408	4,122	1,480	933	58,843
인도양 돛새치	7,598	3,646	3,594	3,296	1,034	6	1,121	1,157	777	461	594	117	2	2	5		403	589	1,200	224	243	1,297	389	210	132	33	128	111	1	28,370
가자미																4								9						13
대서양 작은 꽂치																													1,090	1,090
십각류																	61	360	88	12				491	74		2			1,088
도미류, 강성동류									5	16						7	2								2		1			33
대구과																									1					1
민어과																									140					140
돛새치과	352	373	184	394	429	269	647	596	950	1,558	2,208	3,407	2,401	1,429	2,466	2,548	2,520	2,723	2,466	3,309	2,840	1,952	3,240	1,333	1,112	1,479	1,673	1,212	789	46,859
가오리과													66			146	102	25	92	24	167	239	162	1,069	596	106	75	58	22	2,949
갈치									274							9	8			10	1			606	538		9			1,455
상어, 가오리, 홍어	140	157	36	50	20	71	276	351	528	959	937	144	105		117	104	289	216		38	119	646	1,173	841	852	703	239	122	3	9,236
년도별 소계	31,902	24,681	12,215	14,191	11,098	14,021	18,916	22,324	22,499	48,050	56,453	50,920	45,760	40,861	51,934	40,757	43,020	33,550	36,937	37,833	37,320	44,473	59,919	49,305	51,303	53,668	54,644	23,581	24,932	
총계	31,902	24,681	12,215	14,191	11,098	14,021	18,916	22,324	22,499	48,050	56,453	50,920	45,760	40,861	51,934	40,757	43,020	33,550	36,937	37,833	37,320	44,473	59,919	49,305	51,303	53,668	54,644	23,581	24,932	

VI.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해수면변동기 동해안지역 신석기유적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한반도 주변국의 해수면변동시기를 알아보고, 변동 당시의 신석기시대 유적과 출토유물을 통하여 신석기인들의 생활상을 살펴보았다.

해수면 변동시기는 중국과 일본의 데이터를 비롯하여, 우리나라 속초 영랑호의 화분분석 및 동남해안지역의 동삼동, 상노대도, 영선동 등의 패총유적에서 확인되는 해침현상이 확인된 층위로 그 연대를 짐작해보았다. 대략 6,000 B.C.를 시작으로 하여 4,500 B.C.에는 해수면이 最 極上期에 이르는 연구결과가 확인되었다.

동고서저의 지형 탓으로 동중해안보다 지대가 낮은 동남해안 지역은 현재해수면보다 최대 약 8m까지 상승하여 지역별로 해수면상승의 높이 차이가 있음도 주지할 수 있었다.

해수면상승기 우리나라의 경우 시대적으로 신석기시대로 구체적인 시기는 초기~전기에 해당되었다. 그렇다면, 이 당시 과연 어떠한 유적이 어느 곳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을까?

이 문제에 앞서 신석기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반적인 편년안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했다. 신석기의 편년안은 즐문토기의 기백에 시문된 문양으로 대체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적 중서부지역, 동해안지역, 남해안지역으로 한반도를 세분하고 설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자들의 통설을 근거로 대략적인 신석기시대의 분기 설정과 해당되는 시기의 상정 및 주로 출토되는 토기의 특징을 나열하였다.

6,000 B.C.에 해수면이 변동하는 시기는 주로 용기문토기를 표식으로 하며, 동중해안의 평저무문양 및 압날·압인문토기 및 남해안의 영선동식 토기(자돌·압인문)가 출토되는 시기이다.

다음으로 이들 토기가 출토되는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유적의 예를 살펴보았다.

먼저 동해안지역은 한반도의 동해안에 위치한 지역을 통칭하여 일컫는 용어로서, 다시 강원도와 경상북도북부를 포함하는 동중해안과 경상북도 남부와 경상남도를 포함하는 동남해안으로 나누었다.

모두 해안지역에 위치하는 4개소의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해당시기 모두 조기~전기로, 유적입지의 개괄적인 설명과 유구의 양상, 층위에 출토유물의 공반관계를 언급하였다. 유적의 입지는 대체적으로 해안주변에 위치한 낮은 구릉성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성 문암리와 양양 오산리의 주거유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남해안에 위치한 패총유적과 문화층수습이었다.

출토유물은 토기는 평저계의 무문양·용기문·압날·압인문계의 토기를 주축으로 하며, 석기로는 석부와 결합식조침, 석도 등이 출토되는 양상이었다.

특히 조·전기에 해당되는 토기유물과 결합식조침이 하나의 셋트관계로서 확인되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 시기의 어로생활은 결합식조침을 이용하여 낚시로서 어류포획을 하였다고 여겼다.

이에 동중해안, 동남해안의 지형별 특징과 어류자원을 살펴보고 다양한 방법의 낚시법을 제안하였다.

비교적 해안선이 단순하며, 수심이 깊고,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는 동중해안의 경우는 배낚시 혹은 遠投낚시법, 해안선의 드나듦이 복잡하고 난류가 흐르며, 미생물의 번식이 높은 동남해안의 경우 고정낚시법 및 흘치개를 이용한 낚시법 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전기~중기로 넘어가는 시기 결합식조침이 줄어드는 반면 어망추의 출토가 잦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결합식조침으로 인해 생기는 불필요한 노동력과 시간의 낭비, 또 다른 생계수단인 농경의 확립으로 주된 생활은 어로에서 농경으로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근거는 금강과 낙동강, 남강수계에서 확인되는 중기의 주거유적을 들었다.

이상으로, 동해안지역 조·전기시기의 신석기시대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현재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이른시기의 유적은 거의 대부분이 동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형의 특징과 해수면상승으로 인함인데, 동고서저의 지형과 간빙기로 일정기간동안 계속된 해수면상승의 결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견해는 현재 서해안지역 조·전기의 신석기유적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추측에 불과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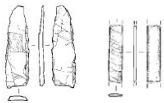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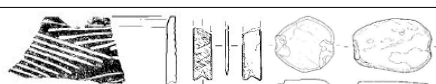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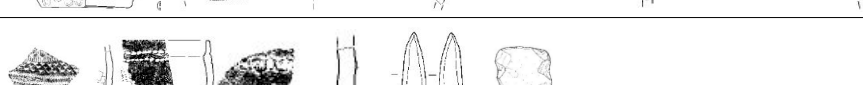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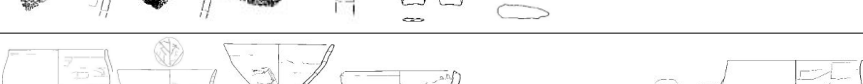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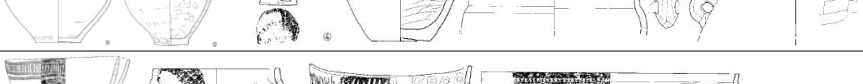
현재 우리나라 해수면 변동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패총발굴조사의 층위로 파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고환경 전문기관의 도움으로 보다 정확한 해수면변동기의 자료가 요구된다.

또한 동해안일대의 조·전기시기 유적도 주거유적보다는 패총유적이 단연 압도적이다. 하지만 현재 강원도 지역에서 양양오산리의 추가발굴과 고성철통리의 주거유적, 동삼동 진입로구간 주거유적으로 향후 보다 많은 고고학적 자료의 축적될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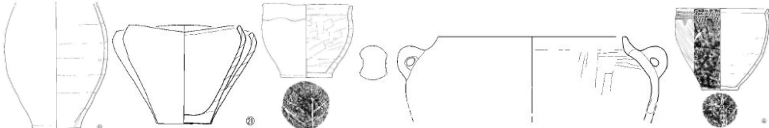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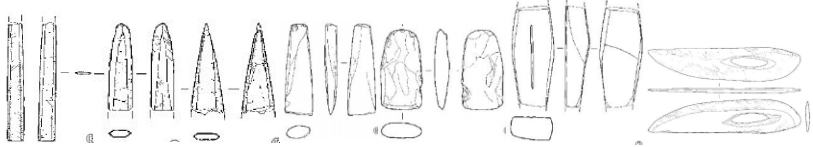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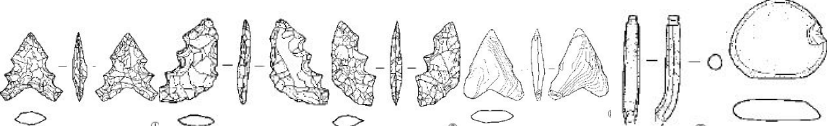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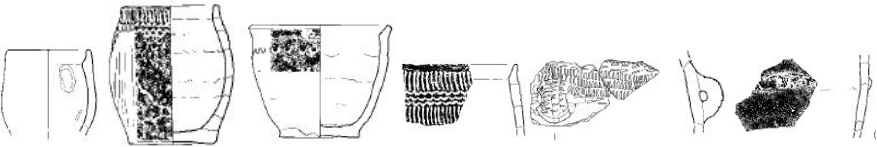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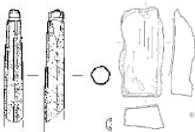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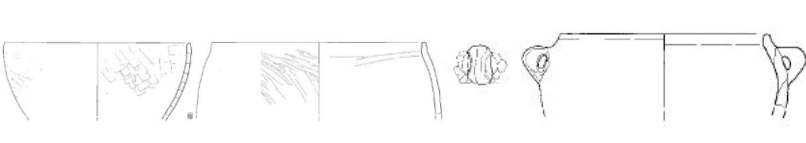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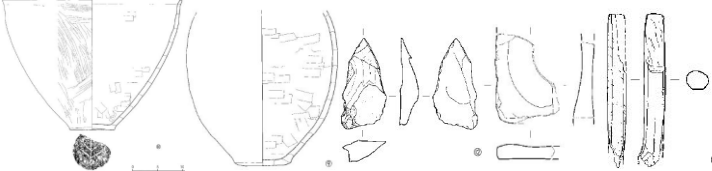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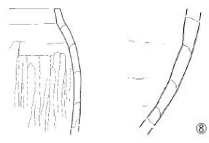
본고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자료는 추후 자료의 증가와 함께 수정·보완하고자 하며, 동해안지역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논지를 전개함으로서 오류와 역측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이 신석기시대의 관심을 고조시키는데 미흡한 힘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바랄 뿐이다.

문암리유적 주거지	출토유물
‘98년-1호 주거지	
‘98년-2호 주거지	
‘02년-8호 수혈	
‘02년-1호 주거지	
‘02년-7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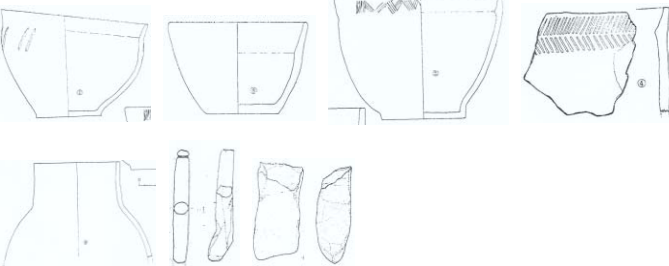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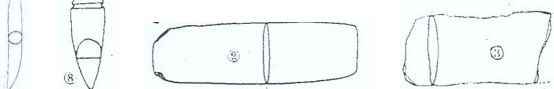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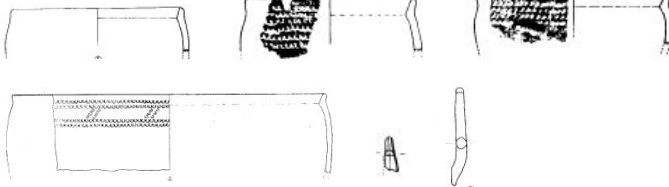
도면8. 고성 문암리 주거지별 출토유물

층위	고성 문암리 출토유물
I 층	
II 층	
III 층	
	
VI 층	
	
VII-1 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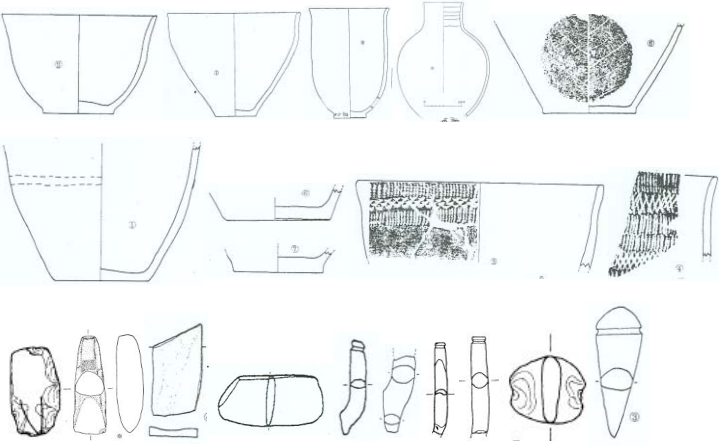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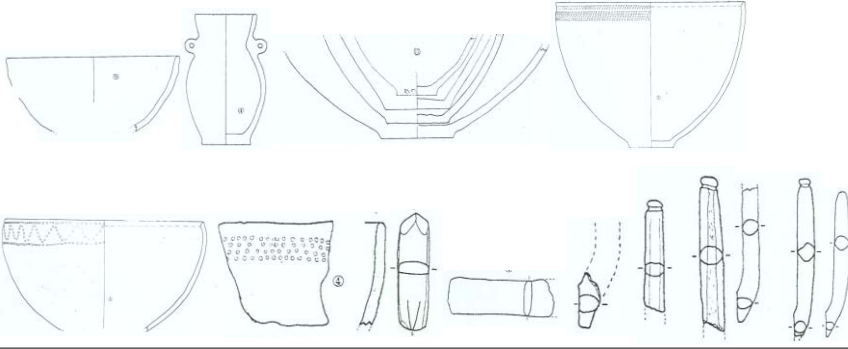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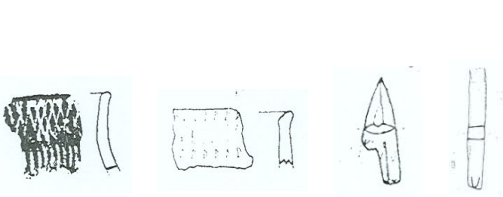
도면 9-1. 고성 문암리 층위별 출토유물

층위	고성 문암리 출토유물
VII-2층	
	
	
	
VIII층	
	
IX층	
	
X층	

도면 9-2. 고성 문암리 층위별 출토유물

오산리 유적 주거지		출토유물
A 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유물 없음
	7호	
	8호	
	9호	유물 없음

도면 10-1. 오산리 유적 주거지별 출토유물

층위	양양 오산리 출토유물
I 층	
II 층	
III 층	
V-1 층	
V-2 층	

도면 11-1. 양양 오산리 층위별 출토유물

층위	양양 오산리 출토유물
V-3층	
V-4층	
V-5층	
V-6층	
V-7층	

도면 11-2. 양양 오산리 층위별 출토유물

층위	울산세죽 출토유물
Ⅱ층	
Ⅲ-1층	
Ⅲ-2층	
Ⅲ-3층	
Ⅲ-4층	
Ⅲ-5층	

도면 12. 울산 세죽왜총유적 층위별 출토유물

〈參考文獻〉

1. 보고서

- 강릉대학교박물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양양 지경리 주거지』, 2002.
- 강릉시, 강릉문화재연구원, 『강릉 초당동 신석기유적』, 2006.
- , 『강릉 초당동 유적 II』, 2006.
- 이영주, 심재룡, 김일규, 김수환, 『김해 화목동 유적』, 경성대학교박물관, 2000.
- 국립문화재연구소, 『양양 가평리』, 1999.
- 국립문화재연구소, 『高城 文岩里 遺跡』, 2005.
- 국립진주박물관, 『欲知島』, 1989.
- 국립중앙박물관, 『동삼동패총 I』, 2005.
- , 『동삼동패총 II·III』, 2004.
- 심봉근, 이동주, 『울산 우봉리 유적』, 동아대학교박물관, 1997.
- 동아대학교박물관, 『태종대 유원지 진입도로 확장구간 내 문화재 발굴조사 개요』, 현장설명회자료, 2005.
- 동아대학교박물관·동아대학교 해양자원연구소, 『동삼 1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지역 내 수중문화재 시굴조사 개요』 현장설명회자료집, 2006.
- 서울대학교박물관, 『오산리 유적』, 1984.
- , 『오산리 유적 II』, 1985.
- , 『오산리 유적 III』, 1988.
- 김정학, 정정원, 『금곡동울리패총-암음주거유적-』, 부산대학교박물관, 1980.
- 정정원, 임효택, 신경철, 『김해 수가리패총』, 부산대학교 박물관, 1981.
- 하인수, 이해련, 이현주, 『범방패총 I』,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3.
- 하인수, 『범방패총 II』, 부산시립박물관, 1996.
- , 『동삼동패총 정화지역 발굴조사보고서』, 부산박물관, 2007.
- 부산수산대학교박물관, 『山登貝塚』, 1989.

2. 도록

- 국립김해박물관, 『진환기의 선사토기』, 2005.
- 국립대구박물관, 『머나먼 진화의 여정 사람과 돌』 특별전 도록, 2005.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울산 황성동 세죽유적도록』, 2002.
太田陽子, 米倉伸之, 「海岸線」, 『日本第4紀地圖』, 1987.

3. 단행본

김진수, 『한국 원시·고대의 어로문화』 학연문화사, 1999. 6, 2003.
김연옥, 『한국의 기후와 문화』, 1985.
김원룡, 『韓國考古學概說』, 일지사, 1973, 1981, 1989.
Brian.M.Fagan 저, 이희준 역 『인류의 선사문화』, 1999.
Robert.J.Wenke 저, 김승옥 역, 『선사문화의 패턴 I-인류, 문화와 농업의 기원』, 2003.
박용안, 공우석 외, 『한국의 제 4기 환경』,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사회과학출판사, 『고고민속론문집』 4, 1972.
이동주, 『韓國 新石器文化의 源流와 展開』, 2006
周琳 編, 『東北氣候』, 1991.
하인수, 『한반도 남부지역 들문토기 연구』, 2006.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강의』, 「신석기시대」, 2007.

4. 논문

김원룡, 「春川 校洞 穴居遺蹟과 그 遺物」, 『歷史學報』 20, 1963.
김장석, 양성혁, 「중서부 신석기시대 편년과 패총 이용전략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고학보』 45, 2001.
김장석, 「신석기시대 경제 연구와 패총」, 『한국신석기연구』 9, 2005.7.
金宰佑, 「부산 태종대 진입도로 확장부지내 유적 발굴개요」, 『한국신석기연구』 제8집, 2004. 12.
김충배, 「신석기시대 뉘시바늘연구(Ⅱ)」, 『한국신석기연구』
김충배, 「신석기시대 뉘시바늘 연구(I,Ⅱ)」, 『한국신석기연구』 제56호, 2003.
九州繩文研究會, 韓國新石器學會, 「日韓新石器時代の住居と聚落」, 『第7回日韓新石器時代研究會 發表資料集』, 2007.
배성혁, 「신석기시대의 토기요 연구-김천송죽리 토기요지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62, 2007.3.
신숙정, 『우리나라 남해안지방의 신석기문화 연구-동삼동·김해·남해도서지방을 중심으로

- 로-』, 1998.
- 안승모, 「동아시아 정주취락과 농경 출현의 상관관계」, 『한국신석기연구』 11, 2006.
- 이경아, 「식물유체에 기초한 신석기시대 ‘농경’에 대한 관점의 재검토」, 『한국신석기연구』 10, 2005.12.
- 이동주, 「동삼동 진입도로지역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격」, 『남부지방 신석기문화의 제 문제』 한국신석기학회 학술발표 자료집, 2006.
- 이헌중, 「동북아시아 구석기시대-신석기시대 전환기의 해체과정과 통합의 제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12, 2006.
- 윤선·이언재, 「수가리 패총의 연체동물 화석군집과 해수면 변동」, 『한국 고생물학회지』 1, 1985.
- 주류성출판사, 「양양 오산리 II 유적 도로확장구역 발굴성과」, 『季刊 한국의 고고학』, 2007.
- 최종규, 「幾何文土器의 編年表作成을 위한 一小考」, 부산대학교대학원 문학석사학위 청구논문, 1977.
- 하인수, 「동삼동패총 정화지역 발굴성과」, 『고고학을 통해본 가야』 제 23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요지, 1999.
- , 「동삼동패총문화에 대한 예찰」, 『한국신석기연구』 7, 2004.
- , 「동삼동패총 문화에 대한 예찰」, 『한국신석기연구』 2, 2004.
- , 「동삼동패총 문화」, 『영남고고학 20년 발자취』, 영남고고학회, 2004.
- 황창한, 「울산 황성동 세죽유적」, 『한국신석기시대 생업과 환경』, 동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2.

〈국외논문〉

- 廣瀬雄一, 「韓國南岸地域の櫛目文土器の研究」, 『考古學の世界』 3, 1984.
- , 「櫛目文前期の研究」, 『伽倻通信』 13·14合輯, 1985.
- , 「韓國嶺南地方櫛目文土器前期の土器變遷」, 『考古學の世界』, 1989.
- , 「대마해협을 사이에 둔 한일신석기시대의 교류」, 『한국신석기연구』 9, 2005.7.
- 藤井昭二, 「埋没林と海水準變動」, 『季刊考古學』 15, 1986.
- 宮本一夫, 「朝鮮有文土器の編年と地域性」, 『朝鮮學報』 121, 1986.
- 宮本一夫, 「원경과 조몽농경」, 『한국신석기연구』 10, 2005.12.
- 小原哲, 「韓國櫛目文土器の變遷」, 『東北アジアの考古と歴史(上)』, 1987.
- Yasuta.Y.M.Tsukada, 김준민, 이상태, 임양재, 「韓國에 있어서의 環境變遷史와 農耕의 起源」, 『日本 文部省 海外學術調査 中間報告書』, 1980.

- 佐藤達夫, 「朝鮮有紋土器の變遷」, 『考古學雜誌』 48-3, 1963.
- 太田陽子, 海津正倫, 松島義章, 「日本における完新世相對的海面變化とそれに關する問題」, 『第4紀研究』, 1990.
- Geng Xiushan, Wang Youngji & Fu Mingzuo, 「Holocene Sea-level change oscillation around Shandong Peninsula」, 『Late Quaternary sea-level changes』, 1987, p.81~96.
- Sample, 「Tongsamdong; A Contribution to Korean Neolithic Culture History」, 『Arctic Anthropology』 vol. XI, 1974.
- Yang Huairan & Chen Xiqing, 「Quaternary trasgression, eustatic changes and movements in north and east China」, 『Late Quaternary sea-level Changes』, 1987.
- Huang Zhenguo, Li Pingri, Zhongying & Zong Yongqiang, 「Sea-level changes along the coastal area of south China since late Pleistocene」, 『Late Quaternary sea-level changes』, 1987, p.142~154.

A Study of the Neolithic active occupation in the Eastern coastal area of Korea

Jung, Mi-Ran

Department of Cultural Resources Studies
The Graduate School
Gyeongj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Chang Ho)

(Abstract)

Whether Korea Peninsula east coast area is come in some time really because this study connects globe with surface of the water rise time historically at that time while is area that supply various data to new stone Age investigators by result of held excavation investigation frequently, also, some solitude being confirmed, examined what inheritance is excavated. And change of occupation activity by change of natural environment recognized.

Did about 6000 B.C. by beginning rise time of surface of the water and at that time Korea Peninsula early stage during new stone Age ~ it time during electricity be . Representative marauder makes this truth take interest to lowdown that is confirmed mainly in present east coast area this time.

Marauder that is examined in this study is situated the all seas

and hill four sides which adjoin as 4 places all. Also, it is stone ax, Seokchok, union Jochim etc. by protuberance hilum, Apnal·Apinmungye earthenware tile zero rock radicals as for inheritance. Among this, union Jochim is important data that supply much datas to understand behavior of fishing capture at that time of occupation activity as concentration confirmed inheritance in relics Ireunsi neolith on the whole.

Union Jochim is epoch-making as for great distance and a single fishing capture tool, but main life changed by farming in fishing by establishment of farming that is unnecessary labor power and waste of time, another means of living to occur by manufacture, and these basis lifted residing solitude of confirmed middle in Herculean strength and pleasure piece, other people precip command.

Also, could guess that change of fishing way through that Chultosarye of fishing net weight one of a representative fishing tool that is confirmed in relics middle increases caused.

For front, if became that supply a little in new stone Age research development, do treatise that see of something wrong informer by desire which do.